유관순賞 제정·운영 관련 연구



충 청 남 도

14476

장 서
등록번호
14476
등록일 년 월 일
남도행정자료실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유관순상 제정·운영 관련 연구」에 관한 연구(2001년 2월 5일부터 2001년 4월 6일까지 수행)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1년 4월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 정창용

유관순賞 제정 · 운영 관련 연구



충 청 남 도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종 용 ·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자

고 혜 령 ·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문화재 전문위원

허 윤 석 ·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연/구/원

오 나 리 ·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의미와 방법 ---------- 3

Ⅱ. 본론 ---------- 9

1. 3.1운동 ---------- 9
가.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 9
(1) 1900년대 이전의 민족운동 ---------- 9
(2) 1900년대의 민족운동 ---------- 13
(3) 1910년대의 민족운동 ---------- 16
나. 3.1운동의 전개 과정 ---------- 18
다.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 28
2. 유관순의 생애 ---------- 29
가. 출생 및 성장 과정 ---------- 29
나. 이화학당 시절 ---------- 35
다.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 44
라. 병천 만세 운동 ---------- 50
마. 옥중 투쟁 및 사망 ---------- 59
3. 유관순 평가 ---------- 69

Ⅲ. 유관순상 운영과 내규 ---------- 74

1. 유관순상 제정 목적 ---------- 74
2. 유관순상 제정 과정 ---------- 75
3. 유관순상 제정 및 운영 ---------- 76
가. 유관순상 제정 및 운영 ---------- 76
나. 시상 분야 ---------- 76
다. 운영 개요 ---------- 77
라. 세부 계획 ---------- 78
4. 규정 ---------- 86

Ⅳ. 결론 ---------- 97

Ⅴ. 부록 : 유관순에 관한 자료 ---------- 101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역사 이래로 여성들의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은 근대사회에 들어 적지 않은 결실을 보고 있다. 교육의 장이 여성들에게도 열렸으며, 봉건적 의미의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늘어났다. 또한 여성들은 21세기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기를 요구받고 있다.[1)]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살아가는데 지침으로서의 역할 모델을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 인물이 거론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역할 모델로 제시되었던 인물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되어왔던 역할 모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 시대의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진 여성의 역할 모델들의 문제점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

1)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의 권리 신장이 만족할 정도에 다다르기에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다. 남녀간의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먼저 시작하였으며 가장 나중에 해결될 그것이라 일컫는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님은 특히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나는 전근대적(前近代的)인 여성의 미덕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많은 상들이 대부분 '훌륭한 어머니상', '효부상', '합리적 소비상'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근대사회를 보낸 오늘날까지도 여성에게만은 어머니나, 며느리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여성을 전인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기능과 임무 수행의 기계로 보게 되기에,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합리성'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교묘히 여성의 '소비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시상하므로, 여성을 생산적이지 못한 인간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역할 모델로서 제시된 여성 인물들이 대부분 '상징화(象徵化)' '신비화(神秘化)'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여성은 지극히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다. 출생, 성장환경 및 성공 과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물은 이미 대부분의 여성에게 '모범'으로서의 효과를 상실한다. 물론 이 문제는 여성 인물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여성들에게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선진적이면서도 민중적인 역할 모델의 제시는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한편 남성위주의 역사 서술 속에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감추어지고 무시되어 왔던 역사적 여성 인물을 복원하는 작업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에 비추어볼 때 충남도청의 '유관순賞 제정' 소식은 모든 여성들에게 큰 기대와 기쁨을 안겨 주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매우 반가웠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유관순의 짧은 생애와 유관순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자료에 관하여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며, 역사적인 재조명을 통한 유관순 바로 세우기 등의 연구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3.1 독립정신의 표상인 유관순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유관순賞' 내규 제정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유관순 연구의 의미와 방법

죽음과 함께 역사의 뒤로 사라졌던 유관순이 부활하게 된 것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였다. 미국에서 귀국한 유관순의 이화학당 시절의 스승이자 만세운동의 동지인 박인덕(朴仁德)씨[2]와 모교의 교장인 신봉조(辛鳳祚)

2) 1897년 9월 24일 평안남도 진남포 만량동에서 아버지 박영하씨와 어머니 김온유씨 사이에서, 5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7세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잃는 불행을

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47년 8월 신봉조를 비롯한 정인보, 한훈, 설의식, 장지영, 서명학, 앨리스, 아펜젤러 외 37명으로 <유관순 기념 사업회>가 발기되었다. 또 그 해에 영화 <유관순>을 학부형이던 이구영이 시나리오를 쓰고 윤봉춘이 감독을 맡아 제작하였다. 이 영화에는 교장 신봉조와 학생 다수가 배역을 맡아 출연하였다. 이 영화는 전국의 극장가에서 선풍을 일으켰으며 장기 상영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정인보와 김충현, 박화성과 임형수의 기념비, 유림이 지은 제문, 이병기과 이홍렬의 유관순 처녀의 기념가, 김인기의 순국 소녀 추모가, 박화성의 전



그림1 전영택<<유관순전>>

겪은 뒤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 그는 진남포 삼농 여학교를 나와, 12살 때 이화학당 중학과에 입학하여 1912년 졸업하고는 또 당시 동대학과를 나와 1916년 졸업하였다.

그리고는 졸업과 동시에 이화여고보의 교사로 일하면서 기하, 체육, 음악 및 합창을 지도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사회의식을 고취시켜 애국 애족의 정신을 특별히 함양시켰다. 그는 이 학교에서 1925년까지 9년 동안 일했는데, 그 동안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여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동료 교사 신준려와 함께 서대문 감옥에서 4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그후 같은 해 12월 대한 애국부인회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1929년 미국 유학을 떠나 1941년 귀국한 뒤에는 1961년 성북구 월계동에 인덕실업학교(인덕전문대학의 전신)를 세워 후배 양성에 힘쓰다가 1980년 4월 3일에 세상을 떠났다.

유관순은 그에게서 민족정신을 배웠으며, 그와의 관계는 3.1운동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유관순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를 만나 격려를 받았고, 유관순이 죽은 지 26년이 되는 해인 1945년에는 그에 의하여 유관순의 일생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홍석창, 『유관순양과 매봉교회』, 한국감리교회 사학회, 1996

기소설 <타오르는 별>[3]등이 잇달아 나왔으며, 196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에게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단장을 수여하였고, 1972년에 매봉 기슭에 유관순 열사 추모각을 건립하고, 매봉에 봉화탑을 세웠다. 선열 동상 건립 위원회는 유관순의 동상을 태평로에 세웠다가 다시 장충단 공원으로 옮겨 유관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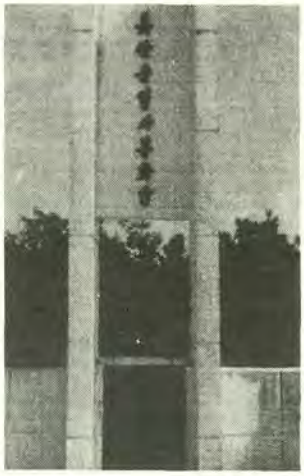


그림 2 유관순 열사 봉화탑

한편, 모교인 이화여고에서는 1963년부터 진주클럽이 지령리 부락과 자매 결연을 맺고 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1967년에는 지령리에 유관순기념교회를 건립하였고 1974년 교내에 유관순기념관을 세웠다. 또한 1981년부터 학교에서는 각 교실마다 그의 초상화를 걸어 학생들에게 그에 대한 정신을 교육하고 있다. 1988년 독립기념관 영내에는 유관순 열사 애국 어록비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던가 적던가 유관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후 줄곧 유관순에 관한 다양한 어린이용 전기문이 출판되었으며, 초·중·고의 각 과목 교과서에는 여러 형태로 언급되어 그 의미를 되새김하고 있다.

---

3) 이상 내용 6장 부록에 수록

그런데 유관순의 이미지는 해방 이후 한국의 당면 과제였던 '근대 민족 국가건설' 의 문제와 혼란스러웠던 '정치적 상황' 과 맞물리면서 상징적인 '애국애족 소녀' 로 화석화된 채 굳어져 갔다. 유관순에 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연구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재해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80년이 흘렀다.

결국,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관순을 잘 아는 생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가능한 자료들조차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많은 이들의 연구와 저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관순을 오늘의 삶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고사하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조차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하다.[4)]

지난 80년대까지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상징화, 신비화된 인물을 역할 모델로 설정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90년대를 지나 새천년에 성장하게 될 젊은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장식된 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그 교육의 수혜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이에 유관순에 대한 연구와 재해석은 보다 사실적이고

4)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의 죽음은, 계속되는 옥중 투쟁에 분노한 일제가 '유관순의 몸을 여섯 토막으로 내었다' 는 것이다. 그의 친척인 유중영씨의 증언에 의하면 시신의 모습이 오랜 옥고로 참혹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오게 된 것은 유관순 영화를 제작한 이가 실감 있게 꾸미기 위하여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진 것은 유관순의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 모델로서 새로운 인간형의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관순에 대한 접근 역시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던 직접적인 개인사로의 접근만을 고집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의 개인으로 접근을 병행하고자 한다. 즉 유관순의 활동근거를 당시의 민족운동의 한 방법이었던 애국계몽운동 특히 종교 및 교육활동의 결과물로 살펴볼 것이다.

즉, 그의 활동이 빛났던 3.1운동 특히 병천(아우내)장터에서의 활동은 3.1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주도권의 전이(轉移)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 이후 점차 주도권이 지방과 민중으로 전이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학생과 종교 하층 지도자의 역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유관순의 인물됨과 활동이 단순히 난세 속에 등장한다는 영웅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과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

연구의 과정은 문헌연구와 현장답사를 통한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각기 보다 나은 관점과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애쓴 흔적이 있으니 만큼 앞 선 연구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먼저 기존의 유관순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유관순 관계 사료를 전시한 장소로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유관순전시실, 정동제일감리교회 사료실, 독립기념관, 상동감리교회, 독립문공원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1900년대 신문을 참고하였고, 유관순이 받은 재판 기록도 살펴보았다.

유관순의 만세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현장과 각 유적지인 유관순열사 생가(사적 제230호), 봉화지(사적 제230호), 초혼묘, 추모각(도 기념물 제58호), 아우내 장터 등을 답사하였다.

그 외에도 유관순의 일생을 잘 아는 이들과 대담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잘 분석하였고 또 간접적이지만 전해지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이상의 문헌과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유관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애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의 활동이 재평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일제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에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독립을 위해 싸운 민족투사 유관순의 이미지만이 아닌, '현재 그가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고려하여 오늘날 여성에게 제시되어야 할 역할 모델의 참 모습이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유관순의 연구는 단순한 유관순 되살리기가 아닌 재해석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하며 이 글이 그 작업의 작은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Ⅱ. 본론

1. 3.1운동

가.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1) 1900년 이전의 민족운동

왜란(倭亂)과 호란(胡亂) 이후 조선 후기 사회는 봉건제(封建制)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즉, 봉건적인 토지제도와 부세제도(賦稅制度)에 변화가 일어나고, 농업 생산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가운데 상품화폐(商品貨幣) 경제의 발달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구래(舊來)의 농촌 사회가 서서히 광범하게 분해되어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신분 계급간의 대립 관계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봉건제의 해체 양상은 우리 민족에게 근대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겨 주었다. 이에 따라 지주(地主)적 개혁 방안과 농민(農民)적 개혁 방안이라는 두 가지 방향이 출현하였다.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할 수 있는 지주적 개혁방안은 양반(兩班)층이 주체가 되어 제시되었다. 즉, 신분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세제도를 얼마간의 양보를 통하여 개

혁함으로써 당면한 농업문제를 타개하려는 견해였다. 이는 봉건적 토지 소유 및 봉건적 제 특권을 불완전하게 해체하여 반봉건(半封建)적인 지주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안은 갑신정변(甲申政變), 갑오개혁(甲午改革), 광무개혁(光武改革)으로 이어져 종전의 토지 소유관계를 근대사회의 토지 소유관계로 전환시켜 지주제, 지주적 상품생산을 바탕으로 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를 꾀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민적 개혁방안은 부세제도는 물론이고 토지제도까지도 개혁해야 농업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농민과 함께 농민적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진보적인 사람들의 견해였다. 농민층은 부세제도의 수탈성으로 몰락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사회적 모순은 봉건적인 토지제도인 지주제가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19세기에 들어 더욱 거세졌던 민란(民亂)은 단순히 궁핍화된 다수 농민들의 불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봉건(封建), 반동(反動)이 강화됨에 따라 잉여(剩餘) 부분을 다시 수탈 당하게 된 부농(富農)층의 불만이 더하여진 것이니, 이는 바로 농민적 개혁방안의 주된 주장이었다. 즉 그들은 지주제를 해체시키는 가운데 농민경제 곧 농민적 상품생산을 바탕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근대화 방안 중 어느

하나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한국사회는 1876년 개항(開港)을 맞이하게 되었다.

19세기 중엽의 세계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하여 분할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마지막 대상이 동아시아였다. 당시 동아시아 사회경제는 자본주의의 맹아(萌芽)가 출현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 서 있었다. 이 중 일본이 미국에 의해 먼저 개항을 맞이하게 되었고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에 불만을 품은 하급 무사와 상인들에 의하여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일어났다. 그러나 메이지유신은 자체적인 자본주의 성숙에 의한 결과가 아닌 탓에 권력층 내부에 많은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었으며, 자본주의 발전 역시 숱한 불균형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국주의적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조선이었다.

한편, 한국 사회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것 역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향의 개혁방안으로 그 흐름을 가지게 된다.

일본은 불평등 조약으로 한국을 개항시킨 뒤 막대한 이득을 얻어내며 본격적인 침략을 준비하였다. 갑신정변 때 지주적 개혁 방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개화(開化)파를 이용하여 친일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청의 개입으로 실패하자 갑오(甲午)년의 농민전쟁을 구실로 출병하여 청일전쟁(淸日戰爭)을 도발한 뒤, 조선 정부에게 청으로

부터의 독립을 집요하게 강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친청(親淸) 정권이었던 민씨 일파를 축출하고 그 대신 친일적인 개화파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니 이것이 곧 갑오개혁(甲午改革)이다. 즉, 갑오개혁은 내부적으로는 개화파 정권의 근대화 정략의 결과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일본의 간섭을 벗어날 수 없었던 개화파 정권의 한계로 인하여 생긴 조선 침략의 과정이라 하겠다.

한편, 농민층은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적대시하였다. 특히 갑오년의 농민전쟁 중 9월의 전면 봉기는 일본군의 왕궁 점령, 경제 침탈, 개혁 강요 등을 침략 행위로 보고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개화파 정권의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시금 그들이 서로를 용납할 수 없었던 요인이 되었다. 그들의 개혁 방안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신분 계급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갑오년의 개화파 정권과 농민군은 정면 충돌로까지 몰고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지주제 곧 지주적 상품생산의 개혁방안과 농민적 토지소유 곧 농민적 상품생산의 개혁방안의 충돌이었으며 그 결과는 일본과 연합하고 있는 개화파 정권에게 돌아갔다. 이로써 농민적 입장의 근대화 방안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한 채 좌절되고 지주적 입장의 근대화 방안만이 남게 되었다.

결국 조선후기부터 이어져 왔던 두 가지 개혁방안은 외세의 침입 앞에서 실패로 끝나고 이 실패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침입은 보다 구체화되어 한국사회는 일본의 수탈의 편이성을 위한 방향으로 왜곡된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2) 1900년대 민족운동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이미 한국은 식민지로 급속히 편성되어갔다. 이와 함께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는 민족운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중 1900년대 초기의 민족운동의 흐름은 크게 의병투쟁(義兵鬪爭)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의병투쟁은 초기 위정척사(爲政斥邪)의 사상을 계승한 보수 유생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들은 근왕적(勤王的) 충성과 유교적 명분론이라는 사상적, 계급적 한계로 말미암아 1905년을 전후하여 점차 전투 대열에서 탈락해나갔다. 반면, 신돌석과 같은 지휘 능력을 갖춘 평민 의병장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들은 농민을 중심으로 의병투쟁을 전개하여 강한 힘을 가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제까지 의병투쟁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던 위정척사사상은 지도적 이념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고, 민중적 민족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어 나타남을 의미하였다.

항일 투쟁은 일본의 대규모 토벌 작전에 의하여 1910년을 전후하여 투쟁 규모와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국내에서의 투쟁의 발전 전망과 가능성도 제약되었다. 의병 잔존 부대는 일본군의 토벌에 밀려 두만강을 건너 점차 북쪽 국경지대로 옮겨갔다. 이것은 전선의 소멸이 아닌 독립운동 근거지의 이동이었으며 해외 무장 투쟁으로의 전환 과정이었다.

항일 의병투쟁은 유생층, 군장교, 말단 관료, 농민층 등 각 계급의 분산적인 저항 세력이 광범하게 결합하여 전개한 국권 회복 운동이었다. 의병부대의 실제적인 주력군은 소·빈농층과 유민이나 빈민들이었다. 이들은 제국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농민적 개혁 방안에 반대하는 외세 의존적 정부와 지주에 대해서도 항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항일 의병투쟁은 농민을 주체로 한 근대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병 부대가 계급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구성원들로 중층(中層)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일제 침략이라는 민족적인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민중의 혁명 운동으로서 발전해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민족 위기의 대응도 제국주의 자체에 대한 과학적 인식 없이 전근대적인 민족 감정 등에 의하여 이끌어졌기에 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의병투쟁의 의의는 농민들이 항일 투쟁의 주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과 향후 50여 년에 걸친 민

족운동사의 큰 흐름에서 무력적 항일 투쟁을 주장하는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 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다. 한편, 1910년대 민족운동의 주요 흐름이었던 독립운동기지(獨立運動基地)건설과 비밀결사는 그 구성원들이 전이(轉移)됨으로써 민족운동사의 맥락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은 개화파의 개혁이념을 기반으로 한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이었다. 애국계몽운동의 목표는 먼 훗날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애국의 차원에서 결집하여 실력을 양성하도록 국민을 계몽하자는 것이었다. 이 운동의 대표적 단체는 신민회(新民會)이다. 신민회의 목표는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의 고취, 동지의 규합과 단합으로 국민의 역량 축적, 교육기관 설치에 의한 청소년의 교육, 각종 상공기관에 의한 경제적 역량의 증진 등이었다.

1910년 통계에 의하면 일제의 힘이 강하게 미친 관공립학교와 준공립 학교가 146개 정도에 그치는 반면, 사립학교는 823개의 기독교계 학교를 포함하여 2250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사립학교는 애국을 강조하고 유교적 사고의 타파와 서양문명의 보급에 이바지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언론활동으로서는 각종 신문을 발행하여 사회의 근대화를 국민에게 계몽하는 한편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였다.

그러나 애국계몽운동은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 봉건주의와 일제의 식민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원인은 바로 그 주도층이 선진적 민족 자본가층과 지식인층이라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들의 지도이념은 전투적 시민사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오히려 애국계몽운동의 의의는 그 자체의 성과보다는 향후 1910년대의 민족운동의 흐름을 주도하여 3.1운동의 인적 자원을 형성하였다는 면에서 더 크다고 하겠다.

(3) 1910년대 민족운동

191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의 두 흐름은 독립전쟁론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독립운동기지 건설 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계승하여 민족의 근대적 역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민족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시 구분해 본다면 비밀 결사 단체와 교육 및 종교운동 단체로 나눌 수 있다.

비밀 결사를 중심으로 한 무력항쟁 중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독립의군보(大韓獨立義軍保),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回復團) 등이 있다. 이들은 국외에 독립군을 양성하여 그 세력으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군자금 모집, 한인 이주, 친일 한국인의 암살 등을 활동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결사는 일제의 무단통치 속에서 1918년을 전후하여 그 활동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 졌다. 이에 따라 국내운동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교육·종교 운동뿐이었다. 1910년 한국을 완전 식민지화한 일제는 구한말의 관립학교(官立學校)와 준관립학교(準官立學校)를 접수하여 민족의식을 소멸시키고 식민지 노예교육을 시작하려고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또한 1911년 10월 사립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에 있어 총독부의 허가와 명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교육운동은 민족정신의 앙양, 애국심의 고취 등으로 미래에 행할 민족운동 역량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교육운동의 성과는 한국 민족 운동의 최대 독립운동인 3.1운동 초기의 학생단(學生團)의 역할이나, 3.1운동의 확대기에 각 지방에서 행한 학생들의 선도적, 전위적 활동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여성들을 위한 교육의 확대는 여성 민족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운동의 특징 중의 하나로 국내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무단 정치 아래 또 하나의 민족주의적 형태로 조직된 것이 기독교·천도교·불교 등의 종교 단체였다. 이들 종교 단체는 국제 여론을 의식한 일제가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강화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였다. 종교단체들은 각 종교가 운영하는 학교 등에서 민족사상을 전파

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굳혀 나갈 수 있었으며, 전국적 교단 조직은 3.1운동 초기 단계에서의 운동의 조직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3.1운동 초기 단계의 주도층 중에서 대부분이 탈락하거나 심지어 소극적 친일파로 변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급 지도자들은 학생들과 더불어 민중과 연계하여 3.1운동을 지방으로 확산시킴으로 민중운동화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나. 3.1운동의 전개 과정

조선 후기 근대화 방안을 두고 계급·신분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었던 두 가지 개혁방안은 개항 이후 근대민족국가 수립을 두고 대립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 정책 대결로서의 결실을 맺지 못한 채 1910년 8월 국권을 강탈당하였다. 이후 우리 민족은 다양한 형태로 민족운동을 진행시켜오다 1919년 3월 마침내 전 민족과 전 계층이 궐기[5]한 3.1운동이라는 큰 물줄기를 이루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1920년대에 다양하게 전개된 민족운동의 분기점이 되었다.

우리 민족 대부분이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은 10여

5) 3.1운동은 지방에 따라서 4월말까지 계속되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인원은 200만이 넘었고, 운동회수는 1,500여회에 달하였으며, 전국 218개군 가운데 211개 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즉 1919년 3월1일, 서울을 비롯한 평양, 의주, 원산 등 7개 도시에서 촉발된 독립운동은 3월 상순에는 주로 평안도, 황해도 각지와 경기도, 함경남도의 도시지역 등 주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3월 중순 이후에는 중남부지방, 면단위 이하 지역, 심지어 산간 벽촌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확대되어 나갔다.

년에 이르는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억압으로 절감하였고, 국제적인 정세가 조선 독립에 유리한 상황으로 변해간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서 그 초기단계에는 민족자본가(民族資本家)의 지도 아래 운동이 전개되고 그 다음 보다 고양된 단계에서는 그 지도권이 식민지 민중에게 전이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를 볼 때, 우리 민족에 있어서도 3.1운동 초기단계까지는 민족자본가에 의한 운동이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6] 이는 아직 이념이나 조직 면에서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민중들에 비하여 민족자본가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지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3.1운동의 초기에 운동을 주도했던 이른바 민족대표들은 나름의 국제 정세에 대한 파악과 국내 조건들에 대한 판단에 의하여 운동을 계획하고, 자신들의 조직기반인 종교단체 등을 통하여 운동의 확산을 꾀하였다. 또 일반 민중들의 항일 의식에 호소하여 그들을 대규모로 동원함[7]으로써 3.1운동이 거족적 운동으로

---

6) 하나의 운동과정을 초기, 후기 단계로 나눈다는 것은 도식적인 분석이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나, 3.1운동의 주도층의 변화를 살펴볼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신용하 교수는 3.1운동을 "초기 조직화 단계" 와 "민중 운동화 단계 "로 나누었다.

7) 3.1운동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49인을 종교, 직업, 신분 면에서 분석해보면, 기독교가 22인, 천도교가 19인, 불교도가 2인, 기타 6인으로 되어 있으며, 직업별로는 천도교 도사가 12인, 목사 및 장로가 17인, 승려가 2인, 교사가 7인, 학생 2인, 사무원 6인, 기타 3인이다. 특히 초기 단계의 주도층 내에서 종교 관계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근대적 교육기관에 관계된 교사, 학생도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단 이들 몇몇 관계자들에 의하여 대중화가 이루어졌

발전하는데 주도권을 담당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그 민족대표가 3.1운동을 지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 민족대표는 국내 반일 기운의 고양, 국내외의 혁명적 정세, 민중의 독립의지 등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한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일을 하는 개량주의(改良主義)적 태도를 보였다. 즉, 그들은 3.1운동을 기획, 촉발하는 단계에서의 지도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민중들을 끝까지 지도해 나갈 수 없었으며, 일제의 탄압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지도 못하여 3.1운동 초기 과정에서 좌절해 버렸다.[8]

이후 3.1운동은 민중들에게 그 주도권이 전이되는 과정을 보이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자들은 구래(舊來)의 민족운동의 두 가지 길을 통해 성장해오고 있던 중간 주도층이었다. 이들의 일단은 학생 세력이고, 그 외 종교 조직의 하층부, 서당생도, 농촌의 중소지주, 소생산 경영자 등으로서 민족운동으로서의 3.1운동을 실질

다고 보기보다는 각 종교계의 전국적인 교단 조직 (천도교의 경우 161개의 교구, 기독교의 경우에는 2816개의 교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기독교의 경우 기독교 계통 사립학교의 교사, 학생들의 역할을 주목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8) 이른바 민족대표들의 3.1운동 초기 단계에서의 역할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단계에서 드러난 그들의 무기력성, 투항주의적 성격에서는 거의 모든 3.1운동 연구에서 일치되고 있는 결론이다. 이들은 민족자본가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일제와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3.1운동 직전 독립선언서와 독립'청원서'를 병행을 결의하거나, 자치 획득에 만족하거나, 외교적 수단에 의하여 독립을 성취하려 했다는 면에서 그러한 모습을 확연히 보여준다. 특히 안병직 < 3.1운동에 참가한 사회 계층과 그 사상 >, 『3.1운동』, 한국일보사, 1975

적으로 주도한 층은 바로 이들이었다.

지방에 있는 종교계의 하층 구성요원들은 종교 조직을 통하여 선언서를 배포하거나 시위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종교적 기반을 이용하여 단독 또는 연대하여 많은 시위를 준비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태화(太和)관에서의 독립선언식과는 별도로 민족운동화단계의 출발점이 되는 파고다 공원에서 선언식과 시위를 가졌으며, 독자적으로 3월 5일 서울 시위를 계획하여 실제로 주도하였다.

청년 학생들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 유포된 선언서, 각 종 유인물과 시위 경험을 각 지역으로 전파함으로써 운동의 확산을 꾀하였다. 또한 이들은 선언서, 태극기, 독립 만세기를 제작 배포하거나, 민중을 동원하고 시위 대열을 이끌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비밀결사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두드러진 활동은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선동, 선전 작업을 펼침으로써 투쟁열기를 고취시킨 것이었다. 간단한 구호를 적은 전단, 포스터, 격문, 사발통문, 관공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신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가 구사되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대표 철함은 제군의 가슴 속에 있다. 제군의 철함 대포로 천하의 어떤 물건인들 부서지지 않겠는가! 우리 형제는 생존하려면 분

발할 것이요, 분발은 생존의 길이다.[9]

우리 동포 형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삼천리 강토를 탈환하라! 죽음은 한 번뿐이고 두 번도 아니다. 우리 동포 형제는 어째서 이다지도 잠잠한가. 동포여 이때가 어느 때냐. 한번 분발하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피와 피! 대한 독립 만세! [10]

이리하여 일제는 "오늘날 소요에 관한 민심을 자극한 것은 선동적 문서의 배부이다"라고 분석할 만큼 청년 학생의 각종 유인물은 투쟁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운동을 확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교사들 역시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이들과 연대하여 시위를 조직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북부 지방의 6개 도시에서는 기독교, 천도교의 하부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운동이 많았고, 남부지방에서는 농민과 학생에 의해 주도된 운동이 많았다.[11]

3.1운동이 이들에 의하여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대구지방의 운동을 잠시 살펴

9) 『각성호회보』 3호, 1919.3.8
김정명편, 1967, 『조선독립운동』 1, 840쪽

10) 청도 운문면 격문

11) 농촌운동의 시작은 국장 참례차 상경했던 유생들이 귀향하여 준비함으로써 이루어지거나 지방 종교 조직에 의한 운동과 학생들이 조직한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의 경우에 있어서 촌락 유력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촌락의 유지들과의 이해관계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후 농민들은 점차 자신의 자각에 의한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었다.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대구지방의 운동 >

3월 2일 민족대표의 한 사람인 이갑성으로부터 세브란스의전 학생을 통해 독립선언서가 이만집목사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같은 교회의 김세연, 계성학교 교사 김영서 등과 모여 3월 8일 장날을 거사일로 잡았다. 이목사와 김세련은 기독교 신자들의 조직을, 김영서 등 계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동원을 맡고 심문태 등 학생대표들과 협의하여 본격적인 운동준비에 착수하였다. 한편 숭실학교 학생이었던 김무생은 3월 6일 평양을 출발하여 김천을 거쳐 전도사 김제원을 만나서 대구에 도착하였다. 두 사람은 신명여학교 교사 임봉선을 만나 참가를 권유하고 계성학교 교사 최상원과 함께 대구고보의 학생 허범을 방문하여 서울의 소식을 전하고 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때 이미 허범 등은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 이상화로 하여금 계성학교와 연락을 맺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계성학교, 대구고보, 신명여학교의 학생들이 연결을 가져 3월 8일 오후 3시 서문 밖 시장에서의 거사가 정해졌다. 또한 교회측도 도내 각지로부터 선발되어 성신학교에서 성경강습을 받고 있던 교도들과 연계를 취했다.

일본 경찰 당국은 이 계획을 사전에 탐지하여 7일 수명을 검거하였으나 학생들은 시장으로 시위 행진하여 약 330여명이 결집하였다. 쌀가마 실은 마차에 올라 김세련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이만집의 선창에 따라 만세를 불렀다. 그리하여 군중들은 곧바로 시위에 들어갔다. 시위대가 달성군청 앞 삼각지에 이르자 대구주둔군제 80연대가 출동하여 5-6대의 기관총을 앞세워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일본 군경의 무자비한 구타, 검속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단 해산하였던 학생 시위대는 그날 밤 8시 다시 시위를 시작하여 경찰서에 몰려가 동료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며, 아직 해산

하지 않은 군중들이 있는 것을 본 일본 군경은 다시 157명이 검거하여 67명을 기소하였다. 이후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3월 10일 이후 세 학교는 휴교되고, 거리에는 일본군 대구 주둔군이 배치되어 엄중 경계에 들어갔다. 그러자 학생들은 혜성단이라는 비밀결사를 결성하여 많은 출판물을 제작, 배포하고 일본인, 친일분자들에게 경고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 학생 대부분은 5월 중순경까지 모두 검거되고 말았다.

이러한 대구의 양상은 유관순의 활동 지역인 충남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충남지역은 3.1운동은 3월 3일 예산군에서 윤칠영 등 5인이 서울의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세를 부른 것을 시작으로 하여 3월말부터 4월 초순까지 매우 격렬하게 벌어졌다. 그 운동의 양상이 매우 격렬하여 일제가 경기지역 다음으로 위험한 곳으로 충청지역을 지목하기도 하였다. 이는 충남지역이 예로부터 위정척사운동, 의병항쟁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종교활동과 근대 교육 등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성장시켜옴으로 민족운동의 역량이 배양되었기 때문이다.

충남지역의 운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관순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천안지역에서의 운동이다. 물론 유관순이 자신이 다니던 이화학교의 휴교령으로 인하여 귀향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수 차례의 학생 의거 및 횃불, 만세 시위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운동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유관순이 주도적으로 전개한 4월 1일의 병천(아우내)운동이다.

이 운동 역시 대구 지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관순[12]으로 대표되는 학생 세력과 종교 하부 지도자의 역할이 확인되고 있다.

일제에 의하여 서울의 사립학교들에 대한 강제 휴교령이 내려지자 이화학교 역시 3월 10일 휴교를 하게 되었다. 이에 독립 선언서 한 장을 가지고 사촌인 유예도(유에스더)와 귀향한 유관순은 부친의 주선으로 교인들 앞에서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지역민의 항일운동을 고무시켰다. 물론 유관순의 이러한 활동이 그들의 만세 시위운동의 전적인 계기가 될 수 없다. 어린 소녀의 강변(强辯)에 향리 어른들이 즉시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충남 지역에서는 유관순이 귀향하기 전부터 꾸준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독립 만세 운동의 분위기가 고양되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음력 3월 1일인 양력 4월 1일 병천 장날[13]을

12) 유관순이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여성들이 근대여성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사회적 비중을 높여갔기 때문이다. 특히 애국계몽기의 여성교육은 국권회복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이화, 정신, 숭의, 진명, 명신, 상동, 숭동, 동덕 등이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던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진다.

13) 대부분의 봉기는 주로 대중 동원에 가장 유리한 장날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대중 동원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주로 5일장) 주기적으로 계속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전술적 발전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장터가 주변의 여러 마을을 중심지에 위치하여 마을 주민들을 조직화하는데도 용이하였다.

기하여 거사를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병천 장터를 가운데 두고 여섯 고을을 망라하여 각 촌 각 면의 연락기관을 분담한 이들은 유림의 대표들과 한 마을에 수 백호씩 차지하고 사는 대서의 문장들을 움직일 계획을 세웠다. 조직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대표 한사람씩을 지령리 교회 조인원에게 보내기로 하고 연락원 역할은 유예도와 유관순이 자임하였다. 그리고 만세 전날에 지령리 서쪽 뒷산인 매봉에서 내일을 확인하는 봉화가 올려지면, 각 지역의 대표들이 그에 호응하는 표시로서 봉화를 올리기로 하였다. 한편 태극기의 제작은 조인원의 아들인 조명호와 서당 청년들이 인근 마을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제작하기로 하였다.

지령리 일대는 관순의 부친인 유중권과 숙부 유중무와 교인들이, 천안 읍내는 안창호 목사 내외가 맡기로 하고, 다음날부터 유관순이 사촌언니와 함께 연락작업을 시작하였다.

20여일 간의 준비작업이 끝난 뒤 만세 날을 하루 앞둔 날, 동생 유관복과 친척 유제한의 도움을 받아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 봉화를 올렸다. 곧이어 매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24개의 봉화가 올려졌는데, 당시가 음력 그믐임을 생각한다면 그 불빛이 힘차게 타올라 장관을 이루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튿날 오후 1시 장터에는 장사꾼을 가장한 3천 여명의 군중이 집결하였고, 조인원의 주도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뒤, 유관순이 곧이어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을 선창함으로써 만세 운동은 시작되었다.

일본 헌병들은 이에 무차별하게 발포하여 40여명 이상의 희생자(즉사 14명 이상)를 내었으며 이에 분노한 군중들은 헌병 주재소로 쇄도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병천 운동에 대한 내용은 2장 4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던 만세운동에 대하여 일제는 초기 진압을 자신하였다. 강력한 탄압에 의하여 많은 희생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여전히 확대되었고 종식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일제는 그 원인을 병력 부족으로 판단하여, 병력 증파를 논의하여 4월 15일까지 재배치를 끝냈다. 이러한 일제의 병력 증파와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에 의하여 운동은 점차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민족운동가들은 퇴조의 가장 큰 요인을 심한 탄압과 함께 '강력한 이념과 조직력의 부재'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군국주의의 속성인 무력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그들 자신도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반성은 이후 1920년-30년대의 우리 민족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다.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3.1운동을 통하여 민족운동은 단순한 복벽운동(復辟運動)이나 국권회복운동이 아닌 과학적 국제정세 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민족해방운동으로의 발전이라는 질적인 심화를 가지고 왔다. 또한 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민족감정에 바탕을 둔 추상적, 분산적, 비조직적 운동에서 구체적, 지구적,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의 변화 및 질적, 양적 변화와 더불어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은 전체 민족독립운동 선상에서의 주도권이 점차 민중들에게 넘어가면서 운동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앞의 3.1운동과정에서 서술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3.1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상징적인 민족지도자로부터 하층 민중에게로의 주도권이 이전되었던 것은 앞으로의 민족독립운동에서도 더욱 발전을 기하면서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러한 민중 운동의 흐름은 민족사적으로는 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저항 투쟁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투쟁으로 자리잡음으로서 1920년대~30년대를 지나 1945년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였다.[14]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1

14) 류청하, <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 한국 근대 민족 운동사 』, 돌베개, 1980

운동은 현재의 역사로 살아남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과제 해결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제의 억압 상황들과 끊임없이 싸워 그것을 극복하며 역사의 주인공이 된 민중들의 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격은 변하였지만 지금에도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억압 상황들에 대한 극복의지를 3.1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의 궁극적인 역사적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되살려야 할 유관순 역시 이곳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유관순의 생애

가. 출생 및 성장 과정

유관순은 광무(光武) 6년 즉 1902년 11월 17일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지령리)[15] 338번지에서 흥양(興陽) 유(柳)씨 중권(重權)과 모친 이소제(李少悌)사이의 3남 2녀 가운데 둘째 딸로 태어났다.[16] 용두리는 유씨 일문만 약 50호 넘게 사는 동리로서 전형적인 동족 부락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유관순의 가문이 충남 천안에서 50

15) 유관순이 태어난 마을은 현재 행정구역상 천원군 병천면 용두리다. 산이 서쪽으로 에워싸 산서(山西), 옛부터 산이 에워싸고 물이 돌아 흘러서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인물이 많이 날 땅이라 하여 일명 지령리라고 한다.

리쯤 떨어진 이곳 지령리로 옮겨 정착하게 된 것은 1695년경으로써 유관순 가문은 이곳에서 충효와 문맥을 이어온 전통적인 가계를 형성하였다.



그림 3 유관순 생가 마을

그의 가문은 멀게는 이조 중기 설화 문학의 대가이었으며 전서, 초서, 예서, 해서에 모두 뛰어난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의 11대 손이며[17] 한편으로는 한말의 의병장 유인석(柳麟錫)[18]과도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였다. 유관순 외가 역시 절개 있는 선비 집안이었다고 한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 역시 구국운동에 뜻을 두고 교육과 종교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서의 교육과 종

16) 유관순의 생년에 대하여 3.1여성 동지회에서는 1904년 3월15일을 제시하는 한편, 가족관계 역시 4남매 가운데 외동딸로 보고 있으나, 홍석창씨가 제시한 유관순의 호적을 보면 그 의문이 풀린다. 유관순은 광무 6년생(명치35년생)이므로 1902년이 타당하며, 유관순을 외동딸로 보게 되는 것은 아버지 유중권씨가 이소제와의 결혼에 앞서 한씨와의 사이에 계출(癸出)이라는 출가한 여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홍석창, 『유관순양과 매봉교회』 한국감리교회사학회, 1996

17) 최은희, 『한국 개화여성열전』, 정음사, 1985

18) 유인석은 팔도의 의병 총대장으로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여러곳에서 일본군과 싸워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고, 이러한 그의 전투 능력은 모든 의병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본래 유림으로서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의병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을미의병이다. 강원, 경기, 함경, 황해, 평안 여러곳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마지막 초산에서 싸움을 끝으로 국내에서의 싸움을 마치고 강을 건너 만주 땅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항일 투쟁을 하다가 생을 마치었다.

교운동은 당시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하여 유중권에게 사회개혁, 부녀자 계몽, 교육 발전 등을 통한 자주독립의 길을 모색토록 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운동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

당시 학교 설립은 서북학회, 기호학회, 교남학회, 호남학회, 관동학회, 흥사단, 대동학회 및 개성학회 등이 유지들에 의해 조직되어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개인으로는 안창호, 이승훈, 이동휘, 유길준, 남궁억 등과 같은 애국지사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후 학교들은 1908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됨에 따라 모든 사립학교는 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때 학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의 수는 2250개였다. 이것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시설을 갖춰 인가 신청을 낸 학교이고 그밖에 규모가 작고 설비가 부실하여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를 고려한다면 아마 그 수는 전국적으로 5,6천으로 추산된다.[19]

용두리에 이러한 취지로 설립되어 운영된 학교로는 장명보성학교(長明普成學校), 흥호학교(興湖學校), 청신학교(淸新學校) 등이 있었다.

유중권은 지령리 마을의 우국지사이며 동지인 한우석, 이재필, 이춘범, 이정래, 강태형(혹은 강세형) 등과 힘을 모아 흥호학교를 운영하였다.[20]

---

19) 홍석창, 『애국소녀 유관순양과 매봉교회』. 한국감리교사학회, 1996

20) 흥호학교와 관련한 기사로서 <황성신문> 융희 3년(1909) 3월 21일자 雜報에 실린 흥호기흥이란 제목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위의 기사를 통해서 흥호학교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선 흥호학교는 본래 병진학교였으며, 1907년 어간에 설립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적어도

이후 홍호학교의 운영진은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자 일제가 정책적으로 육성한 고리대금업자 고마다에게 급전을 빌려쓴 뒤 갖은 수모를 당하였다. 계속되는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홍호학교는 민족적인 색채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결국 어려운 운영 상황과 일제의 교묘한 탄압으로 인하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유중권은 교육을 통한 구국의 가능성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통한 구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유중권은 친척인 유빈기(柳斌基)의 전도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게 되었다. 유빈기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망연자실하여 처자를 고향에 두고 충남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공주에 들르게 되었을 때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되었다. 유빈기는 그후 고향에 기독교 사상을 전파할 뜻을 품고 선교사 기태부(奇怡富, E.M.cable)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를 계기로 향리에 기독교의 실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1908년 유빈기에 의해 지령리교회(現매봉교회)가 시작되었다.[21] 유중권은 기독교 입신 후

국권 강탈 이전에는 이 지역의 관리들과 자본가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에서 대체로 일치되어 나타난 홍호학교 설립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 즉 위의 <황성신문> 기사를 전제할 때, 유중권 등은 홍호학교를 설립하였다기 보다는 홍호학교의 운영에 관여해 오다가 정세의 변동으로 관리와 자본가들이 운영을 기피하자 학교 살림을 도맡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광철, <유관순 신앙과 3.1운동>,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식 제36호』

21) 그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유빈기씨의 장남인 중영씨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고향에 새 교회를 세우려고 선교사들과 약속이 되어 출가하신 지 2년만에 선교사들과 같이 고향에 돌아 오셨다. 새 예배를 시작하던 날은 부근 동리에서 미국 사람 구경할

조인원(趙仁元)과 함께 이 곳 매봉교회의 활동을 주도했다. 유빈기는 그 후 공주로 가서 복음서관을 개관하였는데 이것이 공주에서의 최초의 서점이었다. 22)

결국 매봉교회 지도의 책임은 유중권과 조인원 두사람에게 맡겨졌다. 이후 매봉교회는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의 한 축을 형성한 매봉교회 교인들의 운동을 지도하게 되었다.

유관순은 3남 2녀의 둘째 딸로서 이복언니인 계출, 오빠 관옥(寬鈺 = 우석), 그리고 관복(寬福 = 인석), 관석(寬錫)의 두 동생이 있었다. 오빠 유관옥은 후일 공주지역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두 동생은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으로 천애 고아가 되었다. 이때 두 동생을 돌보아준 이가 공주 영명학교 교사 조화벽(趙和璧)으로 두 동생을 돌보는가 하면, 관옥의 옥바라지를 하여 이 인연으로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유관순에게는 사촌 언니이자 이화학당의 선배가 되는 유예도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충남 홍성군

겸 수 백 명이 모여들었다. 내가 6세 되던 해였다. 자동차도 자전거도 없는 시절이다. 선교사들이 당나귀들을 타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른 아이들이 20리까지 고개를 넘어 마중 갔다. 선교사들은 반갑다고 아이들에게는 선물도 나누어주었다."

유중영, 『고흥 유빈기씨 약사』 ,1986

22) 서점경영과 함께 선교활동을 하던 유빈기씨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거기에 참가하였다. 즉 4월 1일 공주시장의 장날을 맞이해서 오후 2시에 영명학교의 교사 및 재학생 또는 졸업생 그리고 공주교회 교인 등이 주동이 되어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참가하여 3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 후 가족을 남겨두고 서울에 올라와 지금의 세종로에 서점을 시작하였으며 몇 날이 지나 유관순의 시신이 이화학당에 안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유중영과 확인한 뒤 정동교회 김종우목사를 도와 장례를 마치었다.

금맘면 부평리에서 아버지 유중무(柳重武)와 어머니 김씨 사이의 3남 4녀 가운데 맏딸로 태어났다. 훗날 유예도(柳禮道=유에스더)는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되었고 뒤이어 유관순 역시 이화학당에 편입하게 됨으로써 함께 배우면서 신앙과 나라 사랑의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23]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활달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가정환경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다.

향리에서 학교와 매봉교회에서의 배움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관순은 그 당시 공주의 선교사업을 위해 남편인 샤프와 같이 온 사애리시 선교사를 통해 공주의 영명여학교를 소개받았다.[24] 공주의 영명여학교(일명 명선여학당)는 사애리시가 1905년에 시작한 학교로서 보통교육 4년과 중등교육 2년제의 학당으로 지금의 옥룡동 초가에서 시작되었다. 유관순이 언제 이 학교에 와서 몇 년간을 배우다가 서울 이화학당으로 갔는지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후 유관순은 그녀의 주선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13세로 편입하였는데, 이때 학당장은 프라이였다[25]. 교비생이었던 그는 기독교 교인으로서의 신앙을 키우면서 교사나 친구들의 세탁을 남몰래 해주는 등 인정 많고 봉사정신이 강한 소녀였다고 한다. [26]

---

23) 신광철, <유관순 신앙과 3.1운동> ,한국기독교 역사연구 소식 제 36호, 1999
24) 공주 영명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영명 80년사』 공주 영명중·고등학교, 1985
25) 정희경, 『이화90년사』, 이화 90년사 편찬위원회, 1975
26) 심치선, 『이화백년사』 , 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나. 이화학당(梨花學堂) 시절

개신교 선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1880년대의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 사업을 통하여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는데, 스크랜톤과 그의 어머니 스크랜톤 부인 역시 이에 뜻을 두고 한국에 도착하였다.

당시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다가, 국민 대다수가 유교의 교의에 따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신교육을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오랜 쇄국주의(鎖國主義)는 당시 서양 사람을 경멸하는 풍조가 있어 소위 '서양 오랑캐'에게 자신의 딸을 맡긴다는 것은 개화에 앞서 수치로 여겼다. 한편 유교 사회의 내외법에 따라 여성들은 가정에서 유폐(幽閉)되는 생활을 규수의 생활이라 생각하고 바깥 사회에 자유로이 다니는 여성을 천시하였다.



그림 4 초기 이화학당 교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1886년 5월 31일 밤에 하인을 거느리고 정장한 한 부인이 가르침

을 받고자 스스로 찾아왔던 것이다. 이 학생은 고관의 소실인 김부인으로서 왕후의 통역관이 되고자 영어를 배우러 왔다. 이로써 3개월간 1대1 영어 학습이 시작되었다. 배재학당의 시작도 영어 학습을 열렬히 갈구하는 두 학생에서 시작된 것을 보면 당시의 어학에 대한 열기를 알 수 있다.

김부인의 뒤를 이어 최초의 영구 학생이 된 것은 조별단이라는 열두살 남짓한 소녀였다. 그러나 지독한 가난을 벗어날 요량이었던 조별단이 입학한 며칠 뒤에 서양인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으로 딸을 데려가려 하였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양인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서였다. 서양인들이 처음엔 음식과 옷을 주는 척하지만 마침내는 미국으로 데려갈 것이며, 그 후 운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던 데 이유가 있었다. 당시 이화학당 역시 외부에서는 양국관(洋國館)이라 불렀고 의구심에 찬 눈으로 보아왔던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스크랜톤부인은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써주고 별단을 교육시켰다.

서약서

스크랜톤 부인이 박씨에게

미국인 야소교 선교사 스크랜톤은 조선인 박씨와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이 계약을 위반하는 때는 어떠한 벌이든지 어떠한 요구든지 받기로 함. 나는 당신의 딸 복순이를 맡아 기르며 공부시키되 당신의 허락 없이는 서방(편집자 주:미국을 의미함)은 물론 조

선 안에서라도 단 10리라도 데리고 나가지 않기를 서약함.

1885년 월 일 스크랜톤

세째 학생은 전염병 덕으로 얻은 학생이었다. 환자를 치료 차 나섰던 부인의 아들 스크랜톤이 성벽 근처에서 다 죽어 쓰러진 여인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와 치료해 주었는데 그 여인과 함께 온 아이였다.

이후 1886년 말에는 4명이 되고 다시 7명으로 늘어났는데 ,1880년대 학생인 이을라의 회고담을 보면, 극히 소수였지만 개화지사의 딸들과 하층 빈민 출신의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그의 아들 스크랜톤의 자택에서 학생들을 기거시키던 스크랜톤 부인은 1885년 정동 일대의 큰 기와집 한 채와 그 주변의 산재한 19채의 초가를 매입하여 이듬해 2월부터 학교 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그 해 11월에 완공하여 학생들을 이주시켰다.

1887년에는 여성교육에 지지를 보내온 고종으로부터 학교명을 하사 받았는데 바로 '이화(梨花)'라는 이름이다. 이것은 정동 일대가 오래 전부터 배 밭이었고, 이화정이란 비교적 큰 건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화는 당시 왕실을 상징하는 뜻으로 순결을 의미했는데, 이는 여성의 순결과 명랑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왕실의 호의는 곧 당시의 사회와 학당과의 단절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어 학교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화 학당생들은 날로 늘어 1888년에는 학생 수가 18명이 되고, 다시 그 이듬해 가서는 30명이 되었다. 불과 4년이 못되어 늘어난 것이다. 특히 1890년대부터는 양반가에서도 딸들을 보내주었는데 대표적으로 고종의 사위인 박영효의 딸이 학당에 와서 스크랜톤부인과 기거를 같이하며 공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그간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근대식 여성교육이 시작된 동시에 여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이화학당의 교육 목표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의한 인간 교육으로서 한국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적인 여성을 육성하자는 데 있었다. 이러한 이념은 스크랜톤의 글이나 그의 계승자들의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여인들로 하여금 우리 외국인들의 생활 양식, 의복 및 환경에 맞추어 바꾸어지기를 바라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한국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갖기 바라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안전한 한국인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

여성 교육은 애국계몽운동의 고양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1886년 설립된 이화학당의 뒤를 이어 1890년대에는 정신여학교, 배화여학교가 설립되었고, 1900년대 초에는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 양원여학교, 보명여학교, 양정여학교, 용산여학교 등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이라고 다를 바가 없었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여성들이 항일 구국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여성들의 정치 사회적인 비중이 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대 여성 교육을 통하여 여성이 스스로 여권 신장을 위해 애썼으며, 또 남녀 평등의 주체적인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여성교육이 애국계몽기에 여성 교육 구국론으로 발전되었다는데 있다. 이 시기의 여성교육은 국권회복의 이념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며, 위와 같이 많은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설립되는 배경도 되었다.

한편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당시의 학당장 프라이는 지금까지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던 학생들을 흡수하고자 대학부를 설치하였으며 대학부의 졸업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교사가 되거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유관순이 편입할 무렵 이화의 학제는 보통과 4년, 고등과 4년, 중학과 3년, 대학과 5년의 16년제로서, 그는 바로 이 중 보통과 3년에 편입하였다. 어려서부터 유교적 관습에 매이지 얌전한 규수가 아니었던 그는 장난꾼

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성격이 활달해서 이화학당에 와서는 모든 일에 쉽게 적응을 하였다.

이화학당의 생활 속에서 유관순은 특별히 두 사람의 스승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한사람은 이화 학생들이 주일마다 나갔던 정동교회의 손정도(孫貞道)목사이고 또 한사람은 박인덕(朴仁德)선생이었다.[27]


A GROUP OF TEACHERS TRAINED IN OUR SCHOOLS

그림 5 1910년대의 이화학당 출신 교사들

유관순은 손정도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의 근간을 이루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박인덕선생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았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유관순의 학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은 직접적인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관순과 함께 생활을 했던 인사들로부터 유관순의 성품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

그들에 의하면 그는 굉장히 부지런하여 청소하는 것과 빨래하는 것에 열심이었는데, 자기 것은 물론 남의 것까지도 잘 해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된 것에는 그가 교비생으로서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때문에 늘 학교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

27) 홍석창, 『유관순양과 매봉교회』, 한국감리교회 사학회, 1996

는데 있었다고 한다. 또한 남을 잘 동정하여 돈이 없어 식비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자기 식비를 대신 내주고 자기는 굶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림 6 이화학당 시절의 유관순, 윗줄의 맨 오른쪽이 그이다.

한편, 방학이 되면 고향에 가서 자신이 배운 신학문을 통해 농촌계몽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화학당에서는 매일 같이 오전에는 학교 채플이 있었고 성경시간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썼다. 또한 새벽마다 학내에서 새벽기도회가 열렸다. 특히 이화학생들은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 이후 오후 3시만 되면 일제히 수업을 중단하고 조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져왔다. 또 학내에는 1년에 2번씩 봄·가을에 걸쳐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 부흥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이 날만은 공부를 중지하고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종교적 신앙의 각성과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

한편 토요일이면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학교가 쉬는 대신 학생들은 옷을 빨고 데리고 하여 다음날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학장과 교장이 앞에 서고

학생들이 둘씩 짝을 지어 줄로 서서 정동교회로 가 예배를 드렸다.[28]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관순은 그의 생활을 변화시켜 나갔다. 이화학당 이전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정신을 더욱 키워나갔다. 유관순이 밤중과 새벽에 텅 빈 채플에 혼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매일 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유관순은 이화학당의 신앙 프로그램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새벽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이다.

한편, 학교에는 토론과 사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던 이문회(以文會)[29]라는 독서회가 있었는데, 유관순은 이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독립에 대한 애국심을 키워왔다.

이화가 민족성을 이어나가는 데는 교육의 힘이 컸다. 즉 기독교 교육을 받은 신마실라, 박인덕, 신준려, 김활란, 황애덕 등 10여명의 졸업생들이 교사로 채용되어 있었고, 여기에 외부 인사인 김마리아, 나혜석 등이 하란사의 지도하에 학당 다락방에 자주 모여 파리 강화회의에 여성 대표를 파견할 것을 결의하는 등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30]

---

28) 장병욱, 『한국감리교여성사』,성광문화사, 1979

29) 전국의 중등학교 급 이상의 학교들에서는 당시 수많은 독서회와 각종 명칭의 써클들이 조직되어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양시켰으며 수시로 학교 별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용하, <한국국내민족독립운동의 특징>, 『3.1운동』 국가보훈처

30) 특히 하란사는 1890년대 초반에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이화학당의 문을 두드렸으나

이들은 줄곧

'우리는 정의를 위하여 싸워 이기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에게는 2천만 동포가 함께 숨쉬고 있다. 비록 한 사람의 힘은 약할지라도 2천만이 단결하면 우리는 반드시 압박과 구속을 벗고 자유와 평화가 올 것을 믿어도 좋다. 굳세게 단결하자.'

라고 민족정신과 독립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31].

유관순은 이문회의 구성원이었던 국현숙, 서명학[32], 심희자 등과 친하게 어울리면서 단속곳 밑에 있는 고쟁이에 호주머니를 달아서 입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애국가와 '슬프도다 우리 민족아, 사천여년 역사국으로' 라는 망국가를 종이에 베껴서 거기에 집어넣고 다니다가 이따금 후미진 곳으로 몰려가서 같이 부르며 울기도 하였다. 담으로 이웃하고 있던 배재학당을 향하여 '무쇠골격, 돌근육 소년 남아야,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 하는 노래를 크게 불렀다고 한다. [33]

기혼자라는 이유로 3번이나 입학을 거절당했으나 하란사의 용기와 의지를 본 당시 이화 학당장 프라이 선교사가 입학을 허락했다. 이화 졸업 후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1900년 오하이오 웨슬레안 대학에서 한국여성 최초로 문학사 학위를 받았던 사란사는 1906년 이화학당 교사 겸 초대 기숙사 사감으로 취임하였다. 사란사의 교직생활과 사회생활은 애국열로 충만해 있었고 여성교육과 여권신장에 앞장 선 그는 여성계몽을 표방한 여성운동과 민족운동, 국채보상운동 등 민족운동에 앞장 섰었다. 그러나 하란사는 의친왕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실패하자 그 뒤를 이어서 파리로 가기 위해 북경에 이르렀을 때 일제 간첩의 암약으로 급사하게 되었다.

31) 장병욱, 『한국감리교여성사』, 성광문화사, 1979

32) 이화여자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서명학은 신봉조 교장이 1961년 군사 정부의 정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년 퇴임하게 되자 9대 교장으로 취임, 재직하였다.

33) 최은희, <멍에를 벗긴 사람들 - 유관순>, 『한국개화여성열전』, 조선일보사, 1991

다.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3.1운동은 전국적인 범위의 운동인 동시에 여러 부문에 걸친 총체적인 운동이었다. 3.1운동의 각 부문 운동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운동이었다. 탑골 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들이 학생 또는 대중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려던 계획을 '옥외 집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운동이 자연히 과격해 지고, 또 그 운동이 과격해지면 희생자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 장소를 태화관으로 바꾸자 학생들은 태화관으로 좇아가 탑골에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33인이 그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자 학생들끼리 파고다공원에 모여 집회를 열었으며, 그 이후에도 학생들만의 독자적인 운동을 계속 진행시켰다. 이후 만세운동이 진정한 민중운동으로 전이될 때까지 학생들이 활동은 만세운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화 학생들도 3.1운동 시기에 선배 및 교사들의 활동과는 별도로 학교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에 동참하였다. 당시 이화학당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 비밀결사대는 당시 고등과 2학년을 눈앞에 두고 있던 유관순이 속한 이문회[34]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문회의 지도급 학생들은 2월 28일 정기모임에서 전교생이 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 모임이 있기 전 2월 26일 있었던 박인덕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화 선생들의 간곡한 호소가 학생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1916년 대학과 졸업생으로 교편을 잡고 있던 박인덕선생은 당시 말 잘하고 친절하여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으로 유명하였다. 당시 사건을 직접 목격한 바 있는 서명학은 다음과 같이 그때 일을 말하였다.

"한번은 언니들이 방마다 들리면서 이제 곧 기숙사 식당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으니 오라는 것이었다. 모두들 일을 중단하고 기숙사 식당으로 달려가 보았다. 이미 가보니 상급반 언니들이 얼굴에 심각한 얼굴을 한 채 앉아 있고 그 앞에서는 김활란, 박인덕, 황에스더 선생이 착석한 채 분위기가 엄숙하였다. 얼마 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박인덕선생이 아주 엄숙하게 그러나 조용히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대뜸 소독저 한 묶음을 책상 위에 놓고서 말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독립할 것이며 또 만세운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굽어살피시리니, 우리는 단합하자' 고 열변을 토하는 것이었다. 이러고 나서 그는 소독저 한 개를

34) 이화학당의 비밀결사대의 일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유관순을 포함하여 서명학, 김분옥, 유예도, 국현숙, 김희자, 유점선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성창호, 신득실, 노데달 등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뽑아 책상 위에 세웠다. 그러자 절은 쓰러지고 말았다. '여러분 이 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었다. 학생들은 대답하기를 '쓰러졌습니다' 고 하였다. 다음에는 3개를 뽑아 묶고 세웠다. 그래도 쓰러지니 학생들은 쓰러졌다고 말했다. 마침내 그는 한 뭉치로 묶여진 저를 책상 바닥에 세워놓고 물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하니 학생들은 소리를 합쳐서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나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뭉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즉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는 진리를 말한 것이었다. 엄숙하게 그는 다시 힘주어 말했다. '이번 3.1일에 거족적인 만세운동이 있습니다. 이번 운동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뭉친다면 독립할 수 있습니다.' 고 말하였던 것이다."[35]

1919년 3월1일 이화 학당 학생들은 두 가지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하나는 학생 동원 대표 신진심, 유점선, 김마리아, 노예달의 지도 아래 직접 탑골 공원으로 가서 시민들과 합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복을 입고 대한문 앞에 엎드려 곡을 하고 만세 군중과 합류하는 것이었다.

3월 1일 오후 1시경 탑골 공원 북문을 통하여 공원 안으로 입장하여 신특실, 노예달 등은 정재용의 독립선언

35) 장병욱, 『한국감리교 여성사』, 성광문화사, 1979

서 낭독에 이어 만세를 부르며 종로거리로 행진하였다. 대한문으로 나가려던 학생들은 교정으로 집합하였고 학당장 프라이 등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교외 진출을 막기 위하여 교문을 닫고 교사들로 하여금 교정을 지키도록 하였다. 멀리서 들려오던 만세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덧 정동골목 안으로 군중이 몰려들어 만세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유관순은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숙 등의 비밀 결사대와 10여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뒷담을 넘어 탑골 공원으로 달려가서 만세 운동에 동참하였다.

한편 3월 5일 학생단의 독자적인 운동인 3. 5만세운동에도 동참하였던 이화학생들은 기숙사 뒤의 허물어져 가는 성곽을 타고 숲 속으로 빠져 배재학당 쪽의 좁은 골목을 돌아 시위 장소인 남대문 역 앞으로 향하는 행렬에 합류하였다. 시위에 참여한 이화학당 학생들은 행렬을 따라가다가 신특실 등은 종로 쪽 대열을 따라갔고, 서명학 등은 진고개 쪽 대열을 따라가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곳에 못 미친 주택가에서 해산하였다.[36] 3월 5일 남대문 역 광장 만세시위에 참석한 학생명단에는 총 20개교 학교의 학생들의 명단이 정리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화학당 학생들로는 유점선, 노예달, 신특실, 유관순, 김분옥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비밀결사대의 인원들과 겹쳐지고

36) 신광철, 『유관순의 신앙과 3.1운동』,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제36호, 1999

있다.

이때 기마병들이 시위대에 달려들어 해산시키자 학생들은 아무 집에나 뛰어가 몸을 숨기게 되었다. 주민 아주머니들은 이들을 장독대나 안방 다락에 숨겨 주었다. 아주머니들은 예배당의 시간에 맞추어 이들에게 초롱을 들리거나 쓰개치마를 씌어 기숙사까지 바래다주어 무사히 귀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때 서대문서의 경찰들이 출동하여 주동자를 색출하였으나, 학교 당국과 학생들은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죄로 교사인 박인덕, 신준려를 연행하여 서대문형무소에 투옥하였다. 이 운동으로 검거된 이화학생이 28명이었고 5명은 징역을 받았다. 유관순은 무사히 기숙사로 돌아왔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만세운동에 일제는 3월 10일 오후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이 지시에 따라 그 해 10월까지 휴교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각 지방으로 내려간 학생들은 그 지방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거나 합류하였고, 유관순 역시 그러하였다.

다음은 3.1만세운동 전후로 한 이화학당 학생들의 활동상황이다.

1919년 3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 임효정, 최문순은 수원에서 박선태(휘문보고 4년)·이종상(기독교 청년학관생)·차인숙(원이학교 교사)·이선경 (경성여고보 3년) 등과 함께 '학생 구국단'을 조직하였다. 이 모임은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군자금 모금과 임시정부에서 보내온 독립신문, 대한민국 애국가, 일제에 대한 경고문 등을 국내에 배포하고 감옥에 있는 독립 지사들의 가족 돕기 등을 수행하다가 1920년 수원경찰에 체포되었다. 그해 수원 삼일학교 교사 차인제가 최문순의 소개로 이화학생 임순남을 가입시켜 임순남은 부단장, 임효정은 서무부장, 최문순은 재무부장 등 요직을 맡고 있었다. 1921년 4월 임순남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지금도 독립을 희망하는냐"고 묻자 임순남은 서슴지 않고 "물론 희망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또 자기는 일본말이 서투르니 한국말로 대답하겠다고 하였으나 판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1920년 8월에 이화학당 중학과 2년생인 동유실이 그의 교향인 학경북도 성진에서 행한 '쾌활한 청년과 그들의 전도' 라는 항일 강연으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받는 등 이화학생들의 항일 구국 운동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여성들은 용감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 평등권을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1919년 대조선애국부인회 사건 때의 김마리아, 박인덕의 옥고에 이어 1920년 이화 졸업생 최매지, 박승일을 포함한 여성지도자의 잇달은 옥고는 여성 종합지 <신여자> 의 논설에서 이화 중학과 졸업생인 김원주로 하여금 남녀평등권을 주장하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였

다.[37]

라. 병천[38] 만세 운동

유관순은 3.1운동 이후 발표된 휴교령에 따라 고향인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지령리)에 사촌언니 유예도와 함께 귀향하게 되었다. 흔히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역에서 3.1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다가 유관순의 귀향을 계기로 본격적인 3.1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천안은 예로부터 애국애족의 기운이 매우 강한 지역으로서 한말 애국 의병이 산화한 전적지가 많으며, 그만큼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지역에서 수 차례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아우내 운동 이전에 이 지역에서 벌어진 만세 시위 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목천면 보통학교 학생 의거 (3월 14일). 전화선 방해 시위 (3월 16일), 입장면 양대, 입장 시장 만세 시위 (3월 20일, 28일), 천안면 (3월29일), 풍세면 횃불 시위 (3월30일), 성환면 만세 시위 (3

37) 심치선, 『이화백년사』 , 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38) 유관순이 자란 지역인 병천을 우리말 이름으로 하면 '아우내' 또는 '아오내', '아내 ' 라고 한다. 이러한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은 지연적이며 풍수적인 연유가 있다. 즉 병천을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이나 봉우리들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모두 병천에서 만나기 때문에 많은 하천이 이곳에 와서 아우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아우내 (竝川)라 일컫게 되었다. 또한 옛날부터 이 지역은 천안 전의 조치원 진천 등지와 40여리 떨어진 것으로 기차가 개통되기 이전 내륙 교통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걸어서 하룻길 정도가 되어 1750년대 이미 아우내 장이 서 내려왔다. 바로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은 곧 만세 운동이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월31일)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3월 28일 입장의 만세 시위는 직산금광회사 광산 노동자 2백 명이 참여한 운동으로 주목할만 하며, 3월 29일 만세 운동은 3천여 명의 군중이 참여하였고, 30일 만세 운동에는 수천 명의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그러나 '유관순 운동'으로 알려진 병천운동(並川運動)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격렬한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격렬한 독립만세 시위 운동의 하나로 평가된다.

병천운동은 크게 보아서 두 갈래의 물줄기가 만나 큰 강을 이룬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병천운동은 수신면, 성남면계와 동면의 조인원, 유관순계의 두 흐름이 각각 나름의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극대화되었다.

수신면 성남면계는 홍일선의 발의 아래 김교선, 한동규, 이순구, 이백하, 김상철 등 20대 청년들이 뜻을 결집하여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동면의 조인원 유관순계는 조병호(조인원의 아들), 유중군, 유중무(유관순의 숙부), 조만형과 수신면의 김상훈, 김용이 그리고 갈전면의 박제석, 박봉래 등이 뜻을 모아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대정 8년 형공 제127호 판결 이유문을 통해서 수신면, 성남면계의 동향과 동면의 조인원, 유관순계와 합류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39]

39) V. 부록에서 재판기록 참조

이 자료를 통해서 수신면 성남면계의 운동 기획과정과 윤곽을 대략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이 운동은 일단 홍일선의 발의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김교선이 적극적으로 조직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김교선은 한동규와 이순구와 규합하였으며, 한동규가 이백하를 규합함으로써 운동 조직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수신면 성남면계는 운동 세력을 규합하여 시위 장소인 병천 시장에서 만세시위운동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이때 이들은 여러 시장 입구를 각각 맡아서 장에 모여드는 장꾼들에게 시장에서의 독립 시위 운동을 선전하였는데, 오후 1시경에 동면의 조인원, 유관순계가 병천 시장에 합류하면서 운동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합류는 우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보다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두 흐름의 운동 세력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맡은 인물은 수신면에서 학식과 덕망으로 주민의 추앙을 받고 있던 김상훈이었다. 수신면의 20대 청년 김교선은 운동을 기획하던 과정에서 그를 만나 운동을 의논하였는데 그때 김상훈이 조인원, 유중무와 같은 인물을 거론하면서 조인원, 유관순계와의 연대를 권유하였다. 수신면 성남면계는 이러한 제안을 염두에 두면서 운동을 준비하던 과정에 조인원, 유관순계로부터 김상훈을 통한 음력 3월 1일 병천 장날을 이용한 만세운동에 대한 전갈을 받았고 당일 만세운동에 합류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수신면 성남면계의 만세운동과 함께 동면의 조인원, 유관순계 역시 만세운동을 기획하였다. 대정 8년 형공 제513호 판결 이유문을 보면 그들의 운동 기획과정이 나타난다.

3월 5일 남대문에서 학생 시위가 있자 일제는 3월 10일 학교 휴교령을 내렸다. 이에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귀향하여 각자의 고향에서 운동을 촉발하고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유관순 역시 천안에 귀향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이다[40].

예전에 알려진 것처럼 운동의 기운이 전혀 없는 고향 마을의 분위기에 크게 실망한 유관순이 조인원, 아버지 유중권, 숙부 유중무 등의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서울을 정경을 자세히 알리고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듯 싶다. 일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안을 비롯한 충남 지역은 일제가 요주의가 필요한 두 번째 지역으로 꼽을 만큼 많은 운동이 일어난 바 있어 운동의 분위기가 이미 있었으며, 나이 어린 학생이 처음부터 마을의 어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고 보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의 재판기록을 보면 유관순을 병천운동의

40) "당시 이화여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서 3.1운동에 참여하여 열렬히 독립운동을 한 바 있는 유관순 양이 향리로 돌아온 것을 기회로 유관순 양의 부친 유중권 씨와 상의하여, 나의 부친은 유관순 양을 설득한 후 병천 시장에서 군중을 모아 가지고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조병옥 회고록』

중심인물로 규정하고, 그의 귀향과 병천운동을 논리적으로 연관짓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유관순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하간 유관순은 향리 어른들이 만세 시위 운동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유관순은 아버지 유중권을 위시하여 조인원 등 마을 어른들과 함께 교회당에서 3월 5일 남대문 만세 시위 운동에 참가했다가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를 보이고 서울의 만세 시위 운동의 정황을 토론하고 병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만세 시위 운동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병천 시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있는 여러 마을의 뜻을 모으는 연락 및 조직화 작업이었다. 유관순은 이것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어린 소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일단은 유관순의 독립에 대한 열정이 그를 이러한 일의 중심에 서게 하였으며, 당시 이 지역의 사정이 그러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지역은 3월 내내 만세시위운동이 계속적으로 추진된 바 있었다. 유관순의 고향에서도 일찍이 만세 시위 운동에 대한 열망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은 이종성이라는 청년이 주동이 되어서 만세운동을 꾸미다가 사전에 검거되어 청장년 남자들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삼엄하였다. 이에 감시

의 눈길이 소홀할 수 있는 유관순과 사촌 언니 유예도가 연락책이 될 것을 자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예도가 몸이 허약한 탓에 결국 20여일 동안 유관순이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유관순은 천안, 청주, 연기, 진천 일대를 왕복하면서 만세 시위 운동을 담당하였다. 그는 천안에서 장명리 청산학교 교사 김구응을 만났으며, 천안읍에서 안창호 목사 내외를 만났고, 송저에서는 유림 대표 김상훈을 만났으며, 왜마루에서는 안동 김씨 댁을 방문하여 만세시위운동의 뜻을 모았다. 청주에서는 방하울의 유씨 댁, 자포실의 신씨 댁, 백기의 유씨 댁, 경촌동의 유림 대표 박씨, 드무실의 백천 조씨 댁, 무들이의 경주 김씨 댁 등을 방문하여 만세시위운동에 대한 뜻을 전달하여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연기에 가서 남산동리의 박씨 댁, 속새발의 이씨 댁, 발이미의 김씨와 송씨 댁, 월신의 이씨 댁, 상노정의 권씨 댁, 조치원의 임씨 댁 등을 방문하였으며, 진천에 가서는 보평의 이씨 문중, 화산의 전주 이씨 댁, 삽다리의 청주 이씨 댁, 아산의 주씨 댁 등을 방문하여 만세시위운동의 의지를 모아냈다.

유관순은 연락 및 조직 사업을 전개하는 동안 향리 어른들에게 정황을 보고하였다. 유관순은 며칠에 한번씩 중앙연락기관장인 장명리교회의 김구응을 만나 선전조직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지령리 총본부 위원인 아버지 거사를 하루 앞둔 2월 그믐날 밤 유관순은 동생 관복과

유중권에게도 매일의 경과를 보고하였다.[41]

친척 유제한과 함께 어두운 산길을 더듬어 매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렸다. 매봉의 봉화가 타오르자 약속대로 마을의 각 봉우리마다 봉화가 올라 마치 조선인의 독립의 염원이 불길로 타오르는 듯 하였다.

4월 1일 (음력 3월 1일)이 밝자 병천 장터에는 하나 둘 사람들이 보여들기 시작하였다. 수신면 성남면 주민들이 만세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었음 무렵, 매봉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동면의 조인원, 유관순계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병천 장터에 있는 이들과 합류하였다.



그림 7 아우내 장터에 있는 표지석

여인들이 태극기를 나누어주었는데 유관순의 어머니 이소제는 청주 나들이 동남쪽을 유관순의 친구 부덕은 연기 쪽 전의 나들이 아래 뚝 길목을, 사촌언니 예도는 천안 나들이 새고개목 서쪽을 맡아 속속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의 손에 태극기, 아니 독립의 희망을 나누어주었다.

오후 1시경 조인원이 군중 앞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그 뒤를 이어 유관순이 대한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사람들에게 독립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다. 간단한 독립 선언식을 마친 군중은 대오를 형성하

41) 신광철, <유관순의 신앙과 3.1운동>,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식』 36호

여 행진에 나섰다. 큰 깃발을 든 조인원이 맨 앞에 서고, 바로 뒤 유중권, 김구응, 김상헌, 김교선, 조병호 등이 뒤를 따랐다.

합류한 두 물줄기가 하나의 큰 물줄기가 되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자 헌병 주재소에 있던 헌병들이 나와 해산을 요구하였다. 그래도 해산하지 않자 발포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때 유관순의 아버지인 유중권이 옆구리 및 머리에 총상을 입어 맞아 죽음 직전에 다다랐으며, 조인원 역시 좌측 흉부에 총탄을 맞았고 왼팔을 칼로 찔리는 부상을 당하였다. 이후 유중권은 일본의 약은 안 먹겠다고 치료를 거부한 채 3일만에 죽고, 이소제는 운동현장에 쓰러진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들다 일 헌병의 칼로 난자 당해 순국하였다. 이날 사상자를 유관순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즉사자가 19명이고 중상자가 30명이었다고 한다.

헌병의 폭압적인 탄압에 일단 해산한 군중은 오후 4시경 주재소를 포위하고 헌병들의 진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였다. 이 때 유관순은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찌 군기를 사용해서 내 민족을 죽이느냐' 고 달려들기도 하였고, 주재소장의 옷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내 아버지를 죽인 놈이 너구나' 하며 소장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격렬히 항의하였다.

병천운동은 대체로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바로 오후 1시경 독립선언식을 마친 3천 여명의 군중들의 만

세 시위와 곧 출동한 헌병, 수비대와 충돌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단계이다. 이후 하오 4시경 일제의 폭압적인 진압에 격분한 군중들이 순국자의 시신을 주재소로 운반하여, 일제에 대해 항의하였고, 주재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무력적 항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2단계이다. 3단계는 투석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군중들이 천안·병천 사이의 전선을 절단하는 한편,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점거하여 만세시위의 타당성을 천명하는 단계이다[42].

---

42) < 4월 1일 경기도 천안군 병천에서 소요진압정황 >

천안군 병천소요 당일(4월1일) 수일 전부터 매일 밤 읍내 주위의 고지에서 분화를 하며 만세를 높이 부르며 또한 각종 유언비어가 퍼져 형세가 불리하였다. 4월 1일은 장날이라 아침부터 다수의 조선인이 모여들어 장터는 복잡하고 어수선하였음으로 헌병 등이 엄중 경계 중 오후 2시경 군중 3천여명은 큰 한국 국기를 선두로 5·600개의 한국기를 손에 손에 들고 만세를 고창하며 크게 소용한 상태로 헌병 주재소에 들이닥치자 제하던 헌병은 부득이 격투를 개시하였으나 중과부족으로 발포를 하자 일시 해산하였다. 다시 폭동이 일어난다는 위급한 정보를 접한 천안 철도옹호대장 다리갑 대위이하 6명이 자동차를 타고 달려왔다. 오후 4시경 도착할 무렵 한인은 사방에 있었으며 군중은 주재소를 포위하며 제지도 아랑곳 없이 당장이라도 습격할 형세였다. 이때 출동한 일본군 병사는 병기를 사용하여 강력한 진압으로 군중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또한 고지에 산재한 군중이 습격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해가 진후 천안에서 증원한 상등병 이하 5명이 전유하여 헌병과 협력하여 경계를 하고 그 외의 병력은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사모탄 (파견 병졸의 소유) 실포 14발

피해 경향

헌병 주재소 내부 일면에 투석으로 유리가 파손되었고 주위에 철조망이 완파되었으며 유치장을 삽으로 쳐서 파손되었다.

우편소 부근에서는 전화선이 절단되었으며 면사무소 내의 문이 약간 파손되었다.

부상자

한국인 61명 일인 18명은 부상이 심하여 사망하였다. 대부분은 갑 대위 도착 전에 지방의 관헌에 의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유관순은 결국 병천운동의 주모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어 천안 헌병 부대 유치장에 10여일 동안 갇힌 다음 공주 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마. 옥중 투쟁 및 사망

유관순의 민족 운동은 학생운동 시기와 병천운동 시기 그리고 옥중투쟁 시기 등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 세 시기 중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시기는 없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옥중투쟁 시기가 아닌가 싶다.

그는 일단 공주지방법원에서 3년형을 받고 이후 상고하여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장의 재판과정이 부당함에 항의하다 법정 모독죄로 4년이 추가되었는데 여성으로서 더구나 어린 학생으로서 7년형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형이었다.

그리고 서대문 감옥에 있으면서 3.1운동 1주년이 되는 날 또 다시 운동을 벌여 모진 고문 끝에 옥사했는데 이것 역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어린 여학생이기 때문에 조금만 후퇴하는 빛을 보였어도 감형을 받거나 중간에 출옥할 수 있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사들조차 특사로 나오거나 또 형을 마치더라도 살아서 나왔지 그처럼 죽어서 나

온 경우는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옥중에서마저도 얼마나 강직하게 민족의 독립 의지를 불태웠는지 알 수 있다.

부모님이 이미 희생을 당하고 오빠마저 투옥되었으며 자신조차 앞으로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급박한 상황 속에서 펼쳐졌던 옥중 투쟁은 어린 소녀가 벌이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의연히 그것을 해냈던 것이다. 우리가 병천운동을 3000여명이 참가한 거대한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운동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도 그의 이렇듯 투철한 의지 때문이라고 본다.

유관순은 천안 헌병 부대 유치장에 10여일 구금되었다가 공주 법원 검사국의 송치되어 3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유관순은 이곳 공주 검사국에서 공주 지역 만세 시위 운동으로 체포 투옥된 오빠 관옥을 만나기도 하였다.

한편 그곳 여자 감옥에는 이미 김현경 등 공주 운동의 주동자들이 수감되어 있었고, 그 외 천안, 온양 등지의 운동가들도 수감되어 있었다. 특히 온양지역의 주동자였던 이화학당 학생 김복희, 그리고 그 외 박화숙, 한아순, 신씨 할머니 등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같은 처지로 옥에 갇혀있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같은 마을의 신씨 할머니만은 유관순에게 욕을 하며 괴롭혔다고 한다.

"저년이 너무 잘난 체하다가 제 부모도 잡아먹고 머리가 허옇게 시어 가는 나까지 감옥 귀신을 만들었단 말이야. 저 년 하나 때문에 몇 고을이 쑥대밭이 되고, 몇 십 명이 총 칼에 목숨을 잃고…… 아이고 요년, 아이고 요년!"

하며 핍박을 했다.[43] 이 신씨 할머니는 천안군 수신면 복다회리에서 농사를 짓던 67세의 할머니로서, 유관순과 함께 운동을 하다가 붙들려 온 노인이었다. 그는 후에 복심법원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되어 나갔다. 비단 이 할머니만이 유관순에 대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유관순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고향에서는 오랫동안 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 노인의 말 그대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몇 고을이 피폐하였으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유관순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옥중 투쟁이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종교적인 신념에 찬 행동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뒤에는 부모님의 희생과 마을의 피해에 대한 분노 역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유관순은 1919년 5월 9일 공주 지방법원에서, 조인원, 유중무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아, 7년 구형에 3년 언도를 받았다. 공주운동만해도 최고형이 2년이었으니 3년의 형량은 운동가들 중에 중형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어린 학

43) 최은희, 『한국 개화 여성 열전』, 정음사, 1985

생임이 고려되었을 때 유관순에게 3년의 형량은 유관순이 당시 병천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하겠다.

유관순 외 10명은 1919년 5월 9일 공주의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되어 결국 대부분 공주지방법원의 형량 그대로 또 다시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유관순은 1919년 6월 30일 열린 경성복심법원 상고심에서 재판 도중 재판장에게,

"남의 나라를 침략한 당신네들이 내게 무슨 죄를 줄 권리가 있단 말이요 나는 잃어버린 내 나라를 찾기 위하여 투쟁한 당당한 애국 소녀요"

하면서 대어들었다. 한편 판사도 여기에 대항해서 서로 감정 어린 말을 주고받다가, 유관순이 재판장에게 걸상을 집어던짐으로서 3년 형량에 법정 모독죄가 추가되어, 7년형을 받게 되었다.

다음은 병천운동의 주요 운동자의 신원과 형량이다.

이름	주소	연령	형량
조인원	동면 용두리	56	3년
김상훈	수신면 복다회리	46	1년6월
유관순	동면 용두리	18	7년
유중무	동면 용두리	45	3년
김용이	수신면 발한리	24	2년6월
조병호	동면 용두리	21	2년6월
백정운	수신면 복다회리	24	1년6월
심씨	수신면 복다회리	67	무죄
조만형	동면 용두리	21	8월
박만석	갈전면 변천리	19	8월
박봉래	갈전면 변천리	27	6월
김교선	수신면 발산리	28	2년
한동규	동면 수창리	22	2년
이백하	성남면 신덕리	21	2년
김상철	갈전면 가전리	23	6월
이순구	수신면 발산리	22	2년

결국 유관순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공주감옥으로 내려가고, 유관순만이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유관순의 형량이 워낙 무거워, 보통 죄수가 입는 푸른색의 옷을 입지 않고 누런 빛깔의 옷을 입었다.

당시 서대문감옥에는 독립 운동에 참여한 여러 유명한 애국 지사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개성지방 운동가인 전도사 어윤희(魚允姬), 이화학당생 權愛羅, 호수돈 여고 사감 신관빈(新觀彬), 장님 전도사 심명철(沈明

哲), 수원 기생 운동의 주모자 김향화(金香花) 등과 같은 인물들이다. 그곳에서 유관순은 이화학당 시절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사후에도 인연으로 남은 스승 박인덕을 만났다.



그림 8 유관순 옥중 시절

우리는 이후 박인덕선생이 증언한 내용을 통하여 당시 유관순의 투쟁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

"어느 날 지방법원에서 호출하여 그 때 죄수들만이 타는 오동마차를 타고 가서 심문 받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대기소는 사람 하나 겨우 서리만큼 널빤지로 둘러싸인 곳인데, 복도 좌우 편으로 여러 개 있었다. 내 방 옆엔 누가 있나 궁금해서 가만히 널빤지를 톡톡 치고 틈으로 누구냐고 물었더니, 의외로 내가 가르치던 학생 유관순양이었다. 자기는 지방에서 7년 언도를 받고 서울로 상고하러 왔다면서, 지금 서대문형무소에 있다고 한다.

그녀는 감시의 눈을 피해 판자 틈으로 속삭이기를, 학교에서 그날 고향에 내려가자마자 독립운동을 시작했다하며, 자기 부모가 일본 순경에게 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총살당했다고 한다. 그녀는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고 치를 떨면서, 자기는 이 운동에 목숨을 바쳤노라고 한다."[44]

44) 여성 동아 편집실, 『아 3월, 기미년 횃불 든 여인들』 . 동아일보사, 1971

결국 유관순은 이곳 서대문감옥에서도 어윤희, 박인덕 등과 함께 옥중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1920년 3.1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밥을 나르는 여죄수를 통하여 '우리나라 독립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우자' 는 결의의 쪽지와 함께, 3월 1일 사무실 괘종시계의 소리를 신호로 만세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내용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이 옥중만세운동에는 절도, 강도, 파렴치범, 사기범 등으로 수감되어 있던 이들까지 합세하는 등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 만세소리가 감방을 지나 거리까지 흘러나와 모화관, 냉천동, 애오개, 서소문 일대로까지 번져 전차가 불통되고 경찰서 기마대가 출동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45]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많은 우국지사들이 심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유관순은 매를 맞아 방광이 터지고 이신에는 유방이 파열되기까지 하였다.[46]

유관순은 그 후에도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그 만큼의 고문을 받았다. 보다 못한 그의 스승 박인덕은 비밀리에

"만세만 부른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 몸만 상할 뿐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동지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니 부디 참아

45) 3.1 여성동지회문화부, 『한국여성독립운동사』, 3.1동지회, 1980
46) 여성동아편집실, 『아 3월, 기미년 횃불 든 여인들』 동아일보사, 1971

달라"

라는 연락을 취하여 후일의 도모를 기약하였다. 이후 유관순은 박인덕선생의 뜻을 받아들여 옥중에서 법을 이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

유관순은 이러한 옥중투쟁을 통해 민족의 독립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줌과 함께 타자를 위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었다. 염씨의 부인 노영애가 만삭의 몸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가 출산 때 잠시 보석되었다가 아이와 함께 다시 수감되었다. 이때 유관순이 그와 한 방에 있게 되었는데 유관순은 자신의 밥을 산모에게 덜어주고, 마르지 않은 기저귀를 자신의 허리에 감아 말려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47]

1920년대에 시작되었던 일본의 문화통치는 무력적인 탄압으로는 더 이상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자체적 평가의 결과였다. 이후 일본은 한국 민족의 독립 열망을 분열, 약화시키고자, 회유정책을 시행하여 그 대상이 된 많은 애국자들이 이에 변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3.1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형량도 갖가지의 명목으로 감형되었고 일부는 출옥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은 옥중 투쟁을 계속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일제의 고문으로 건강이 날로 악화되어 결국 형기도 마치지 못한 채 1920년 10월 12일 옥사하고 말았다.[48]

47) 최은희, 『한국 개화 여성 열전』, 정음사, 1985

그가 죽자 감옥 당국은 그의 시신을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이화 학당장 프라이와 교사 월터가 이틀 뒤 이 사실을 알고 시신을 인도해 줄 것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유관순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 그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또 다른 운동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시신 인도를 거절하였다.

이에 프라이 학당장과 월터 선생은 시신 인도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 사실을 본국에 알려 세계에 폭로시키겠다며 거세게 항의하였다.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본은 마지못해 시신을 내어주면서 조건을 붙였다. 즉, 시신에 대한 말은 누구에게나 알리지 말 것과 장례는 가급적 조용히 치를 것을 요구하였다.

이 조건을 수락한 학교 당국이 유관순의 시신을 인도하였고, 곧 가까운 친척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당시 유관순의 부모는 이미 죽었고 오빠 관옥은 복역 중이었으며, 삼촌이었던 유중권 역시 복역 중이었다. 한편 동생들은 졸지에 부모를 잃고 고향에서 보호를 받을 만큼 어린 나이였으므로 시신 인도를 할 형편이 아니었다. 결국 그에게 당시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유빈기였다. 그는 현 세종로에 해당하는 황토마루에서 기독교 서점을 하고 있었다. 유빈기는 그의 아들 유중영과 함께 시신 인도를 참관하였다.

---

48) 경성 복심법원의 재판기록에는 대정 10년(1921) 1월 6일 만기 출옥으로 허위 기록하고 있음.

오늘날 유관순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관순의 계속적인 옥중만세운동에 분개한 일본 순사의 칼에 사지가 토막 나서 살해당하였고 그의 모교 이화학당이 시신을 인수하였으나 여섯 토막으로 참살된 처참한 모습이어서 수의를 입힐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아마 유관순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던 중 극적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추측된다.

아버지 유빈기와 함께 유관순의 시신을 확인한 유중영의 증언에 의하면 유관순의 시신이 처참한 모습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토막 살해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밤 유관순은 그를 아끼던 선생 몇과 동무들이 밤새 지은 수의를 입었다. 가슴에는 학당장 프라이가 놓아준 성경책이 있었으며 작은 두 손에는 동무들이 마련한 꽃을 꼭 쥐고 있었다. 염습을 마친 뒤 입관하였으며, 그 이튿날 새벽 일찍 정동교회로 가서 부담임 목사인 김종우의 주례로 장례식을 마쳤다. 그리고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이후 이태원 공동묘지가 일제의 군용기지로 전환됨에 따라 미아리 공동 묘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관순의 묘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17세 어린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인데 그의 묘지조차 찾을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 표현할 길이 없다.

3. 유관순 평가

유관순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를 살펴본다면 '애국애족(愛國愛族) 소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민족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애국애족 소녀'로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유관순의 평가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삶의 방향이 되고 역할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의 새로운 평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유관순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잡고 있다.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작년에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세기를 빛낸 여성, 21세기를 빛낼 여성'의 설문에서 박경리의 뒤를 이어 2위를 하였으며, 사회운동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한 것[49]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화석화된 유관순의 이미지에 기대고 있는 결과이다. 근대국가 설립과정 속에서 국민 및 민족 의식의 함양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초·중·고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교육 받아왔던 애국애족

49) 2000년 7월 10일 매일경제 37면 참조

의 상징적 정당성이 유관순의 그러한 이미지와 부합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애국애족의 이념은 시대의 요청 속에서 제시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내셔널리즘'은 중세 봉건 사회가 해체되던 시기 근대국가의 성립 과정 속에서 봉건제에 대항하기 위한 이념으로서 등장하여 역사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한편, 19세기에 들어서 '애국애족'의 이념은 분화되어 양면적 기능을 보여주었다. 즉,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것을 침략과 팽창의 원동력으로서 이용하였으며, 이들의 침략을 온몸으로 막아야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민, 민족에게는 저항으로서의 애국애족으로 나타났다. 유관순의 애국애족은 후자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제하의 삼엄한 분위기 속에 역사 뒤편에 잠자고 있던 유관순이 해방 이후 다시 살아난 것은 반가운 일이나, 그 이후 1950년대를 지나 1980대까지 꾸준히 강조된 그의 평가가 더 이상의 자료 수집도, 더 이상의 연구도, 재평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애국애족 소녀 유관순'이라는 점은 이후 권위적인 국가 권력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 한국사회는 앞서 언급하였던 당면과제나 국가나 민족적 위기의식의 시대라 할 수는 없다. 더불어 꾸준한 민주화의 운동에 의해 권위주의의 시대는 지나가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움직이는 시민사회

(市民社會)가 성립되었다.

시민사회의 주인공인 시민들은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인 국민국가(國民國家)의 통치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 국민국가의 역할은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반면 그 대안으로서 시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유관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라면, 그 평가는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근거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이로써 유관순은 애국애족의 굴레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즉 유관순은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서있는 것이다. 유관순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서 있을 수 있다. 그는 약자 편에서 서있기를 원했으며,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외치고 그것을 바꾸려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 있는 행동가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관순은 보편적 인간애에 바탕을 둔 실천하는 휴머니스트라 할 수 있다.

일제 하 유관순이 민족 해방을 위해 목숨을 불살랐던 애국애족 소녀였다면, 1945년 해방 직후에는 신국가건설(新國家建設)을 고민하는 젊은이였을 것이다. 또한, 1960년의 4월 19일에는 그 동안의 장기집권과 불법선거에 항거하는 젊은이들 앞에 서 있었을 것이다. 또한 1970년대에는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가가 아니었을까,

1980년대에는 노동자들을 위해 서있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21세기의 유관순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시민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인간 존엄의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 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예전의 그가 그러했듯이 이를 온 몸으로 실천할 것이다.

그는 모든 곳에 있다. 빈민운동가로서, 노동운동가로서, 시민운동가로서, 환경운동가 등으로서 자신의 이해를 따지지 않고, 약한 자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불의를 보면 정의를 얻기 위해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모든 곳에 서 있다.

즉, 이전의 애국 애족적 유관순의 평가는 오늘날 시대의 소명(召命)에 따라 역사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되새김되어야 한다.

유관순상은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 상의 대상은 유관순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리고 유관순이 생전의 활동보다는 그가 계속 삶을 이어갔을 때의 많은 가능성을 유념할 때 기존의 상들과는 다르게, 보다 젊은 여성들에게 시상을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많은 상들이 이미 사회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자들을 그 수상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수상자들의 업적과 사회적 명성을 고려한다면, 수상의 자격과 이유는 타당하며, 그것으로서 상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관순이 당시 사회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일을 앞으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였음을 고려한다면, 앞서가는 충남도청으로서 보다 과감하고 진보적인 '수상자의 선택'을 기대해 본다.

Ⅲ. 유관순상(賞) 운영과 내규

1. 유관순상 제정 목적

21세기는 여성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인류의 발전과 인간다운 삶에 초석이 되는 시기이다. 남성과 여성이 성적인 차별을 뛰어 넘어 함께 더불어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야 한다. 이에 지침(指針)이 되는 여성 시민상(市民像)을 일구어내어,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를 확장시켜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때에 충청남도는 충남이 낳은 세계적인 여성인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반영시켜야 할 지침이 되는 시민상으로 확정하였다. 지금까지 있어온 군이나 도 단위의 인물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또 과거에 매여 있는 인물이 아닌 지금 이곳에서 요구되는 인물로 나타나기를 희망하였다. 이 희망은 유관순상으로 표출되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민족신문으로 시작한 전국적 규모의 신문인 동아일보와 협의하여 유열사의 정신과 삶을 나누는 매개와 홍보의 역할을 담당케 하였으며, 유관순열사를 발굴하여 지금까지 그 정신과 삶을 계승 실천하도록 연구해온 유열사를 낳은 이화여자고등학교와 협의

하여 유관순상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논문과 내규를 연구 발표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였다.

앞으로 유관순상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유관순상의 근본 정신과 운영은 충청남도와 동아일보와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유지시키며 확장 시켜야 한다.

앞으로 유관순상 위원회는 수상자를 현대 여성의 지침이 되는 인물로 삼아 온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본받게 하므로, 인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아름답게 성장시키고자 한다.

2. 유관순상 제정 과정 (연혁)

심대평 충청남도 도지사의 제안으로 유관순상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8. 12. 25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에 <유관순상> 제정 계획 반영
1999. 2. 27 <유관순상> 제정 기본 계획 수립
1999. 5. 17
~ 6. 30 <유관순상> 제정 관계기관에 의견 자문
1999. 7. 1
~2000. 4. 1 <유관순상> 제정 관계기관 의견 수렴

2000. 4. 24 <유관순상> 제정 기본계획 수정하여 수립
2000. 4. 26 <유관순상> 제정 관련 동아일보사와 협의
2000. 6. 21 <유관순상> 제정 관련 이화여자고등학교와 협의
2001. 1. 27 <유관순상> 제정·운영 관련 업무 이화여고에서 주관 시행
2001. 2. 5
~2001. 4. 6 <유관순상> 제정·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

3. 유관순상 운영

가. 유관순상 제정 및 운영

유관순상은 1999년 심대평 충청남도 도지사의 제안으로 충청남도와 동아일보 그리고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상호 협조하여 상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상의 주체로서 2001년 유관순상 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을 전담하게 되었다.

나. 시상 분야

유관순열사가 당시에 보여준 정신과 삶을 분석하여, 오늘이라는 시대에서 이해한다면 비인간화된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 또는 불법과 불의의 사회에서 정의와 공법을 세우는 일, 그리고 불화와 위기의 사회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 역사적으로 주체적

인 시민의식을 일깨워나가는 일로 명시할 수 있다.

유관순상 위원회는 오늘날 삶의 도처에서 인간다운 삶을 열기 위해 오늘의 유관순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찾아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삶을 본받는 이들을 육성시킴으로 구체적인 공헌과 업적을 쌓아, 그 삶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서 감동과 귀감이 될 수 있는 여성으로 한다.

다. 운영 개요

운영 개요　　총 소요일정 12개월

추천인에게 추천 서식을 송부 - 매년 4월 이전
↓
후보자 접수 - 마감은 매년 6월 30일까지
↓
심사위원 선정 위촉 - 매년 7월 10일까지
↓
심사위원회 구성 - 매년 7월 10일까지 5~9명으로 구성
↓
수상후보자 업적 내용 심사 - 수상후보자 순위 선정
↓
유관순상 위원회에 제청 - 매년 8월 31일까지

↓

유관순상 위원회의 수상자 결정, 추천인 선정 - 매년 9월 초

↓

수상자 공고 및 익년도 시상 계획 공고 - 시상식 30일 전

↓

시상식 개최 - 매년 10월 12일 유관순열사 기일

↓

익년도 시상 계획 공고(2차) - 익년도 3월 1일

라. 세부 계획

(1) 시상 계획 공고

유관순상 위원회는 매년 9월 12일 전에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을 위한 공고 시에 첨부하여서 제1차로 익년도 시상 계획을 공고하고, 익년도 3월 1일에는 제2차로 시상 계획만을 공고한다.

이 공고는 동아일보를 위시하여 일간지를 통해 발표한다. 가능한 각종 방송 매체도 이용한다. 공고의 내용에는 상의 목적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추천인 선정 위촉 및 발표

추천인은 다음의 인사 중 유관순상 위원회에서 선정한

다.

① 유관순상 위원
② 역대 유관순상 수상자
③ 역대 유관순상 심사위원
④ 국내 각계 저명인사 및 기관 단체장
⑤ 유관순상 위원회가 별도로 위촉한 추천 특별위원회

유관순상 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청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매년 9월 초 모임에서 익년도 후보자 추천인을 선정하여 익년도 시상 계획을 공고하기 전까지 위촉한다. 유관순상 위원회는 시상 계획을 공고할 때 추천인을 명시한다.

1차 명시 - 수상자를 공고하는 9월 12일 시상 계획 공고 시

2차 명시 - 익년 3월 1일 시상 계획 공고 시

(3) 추천인에게 추천 서식 송부

유관순상 위원회는 매년 4월 이전까지 추천 서식을 송부한다.

추천서식은 유관순상 위원회 소정 양식에 따른 추천서 1부와 기타 업적 및 공적 내용과 이에 따른 증빙 자료이다.

1) 후보자 추천서

유관순상 후보자 추천서

유관순상 시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유관순상 위원회 귀중

추천 사유(1000자 이내로 기술)

후보자 일반 사항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한자) _____

생년월일_____년 ____월 ____일 만 _____세

E-mail 주소_____

자택 주소 우편 번호 _____-_____

_____

자택 전화 _____-_____-_____

근무처_____ 직위 _____

회사 주소 우편 번호 _____-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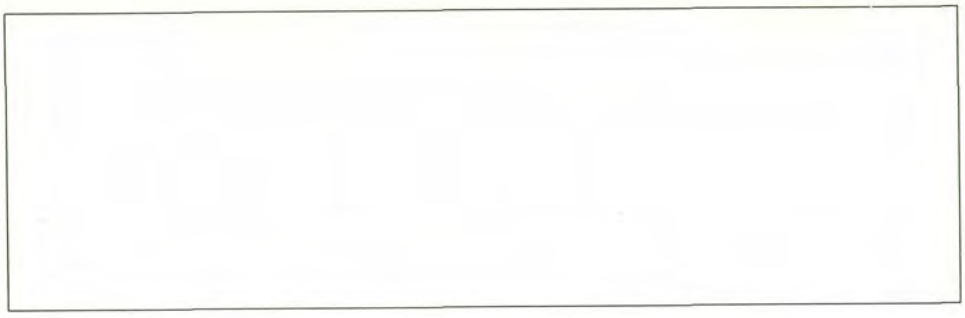
_____

회사 전화 _____-_____-_____

회사 Fax _____-_____-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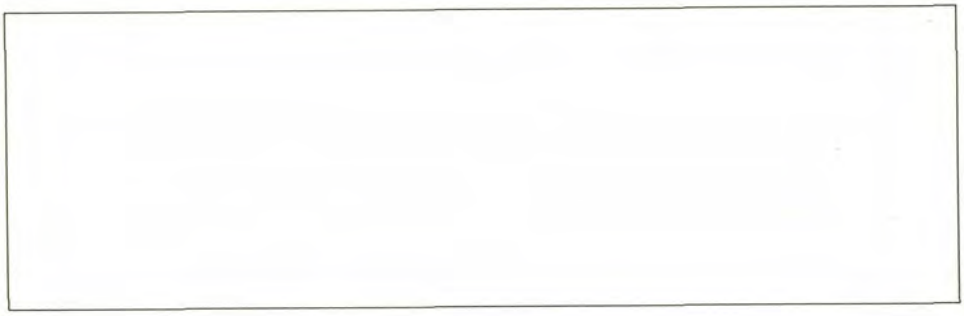
학력 및 주요 경력 (1000자 이내로 기술)

주요 포상 내용 (1000자 이내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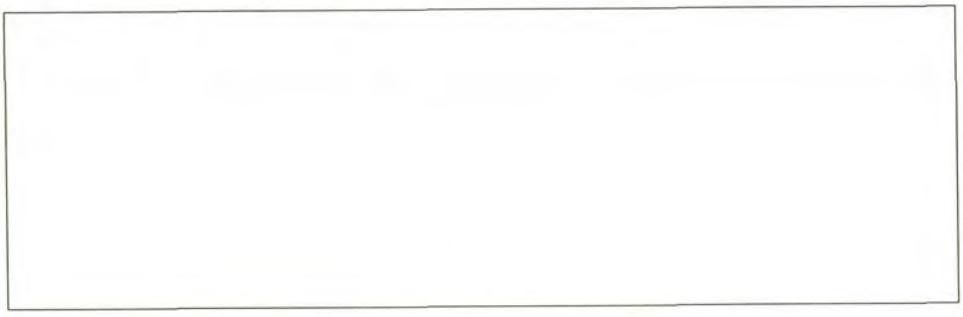


---

2) 업적 및 공적 내용



별첨 : 증빙 자료 명세



(4) 후보자 접수

유관순상 위원회 사무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추천된

후보자를 접수한다.

1) 접수 기한 2001년 6월 30일

2) 접수 장소 충청남도 도청 내
유관순상 위원회 사무국
동아일보사 내
유관순상 위원회 사무국
이화여자고등학교 내
유관순상 위원회 사무국

예 : 이화여자고등학교 내
유관순상 위원회 사무국 경우

우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32번지 이화여자고등학교 내
유관순상 위원회 사무국
전화: 02-752-3353 교 000번 유관순상 위원회
전송: 02-319-0669
인터넷 접수도 가능함 : www.ewha.hs.kr/
유관순상 위원회

3) 추천인은 1인, 혹은 1개 단체만을 추천할 수 있다.

4) 기타

중요 서류 및 증빙 자료는 사본을 제출케 한다.

추천된 후보자의 서류와 공헌 및 업적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 선정 위촉

유관순상 위원회는 7월 10일까지 추천된 후보자들의 업적을 일반적으로 분류하여 5~9명의 관계 전문 인사를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6) 심사위원회 구성

유관순상 위원회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7월 1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을 선출한다.

(7) 수상 후보자 업적 내용 심사

심사위원장의 주관으로 후보자의 자격과 업적을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필요시에 전문가의 자문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수상 후보자의 순위를 선정한다.

(8) 유관순상 위원회에 수상 후보자 제청

심사위원회는 결정된 수상 후보자 순위를 심사 내용과 함께 유관순상 위원회에 제청한다.

(9) 유관순상 위원회의 수상자 결정 및 추천인 선정

유관순상 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제청받은 순위별 수상 후보자의 업적을 재심하여 매년 9월 초 최종 수상자를 확정한다.

동시에 익년도 추천인도 선정한다.

(10) 수상자 공고 및 익년도 시상 계획 공고

유관순상 위원회는 시상식 30일 전에 수상자와 함께 익년도 시상 계획을 공고한다.

(11) 시상식 개최

유관순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매년 10월 12일 유관순열사 추모일에 거행하며 시상은 유관순상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위임하는 인사가 한다.

1) 본상과 부상

유관순상 수상자에게는 본상으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시상금을 수여한다.

2) 엠블럼 및 시상물

유관순상 엠블럼은 장충단 공원에 세워진 유관순像으로 한다.

메달과 상장 그리고 상패에도 이 엠블럼이 들어가게 한다.

3) 기념 부대 행사

유관순상 위원회는 수상자를 통하여 유관순열사의 정신과 삶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상 기념 강연회 등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그 사상과 삶을 방송을 통해 방영한다.

4.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유관순열사의 정신과 삶을 오늘에 합당하게 구현시킨 여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유관순상(다음에는

"상"이라고 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주체

상의 주체는 충청남도와 동아일보사 그리고 이화여고가 함께 구성한 상 위원회로 한다.

제3조 시상과 명칭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명칭은 유관순상이라 한다.

제4조 수상자

1) 수상자는 유관순열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합당하게 구현하여온 여성으로 한다. 곧 비인간화된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인사, 또는 불법과 불의의 사회에서 정의와 공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인사, 그리고 불화와 위기의 사회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는 인사, 역사적으로 주체적인 시민의식을 일깨워나간 인사 중에서 정한다.

2) 수상자는 1인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여성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3) 단체는 아니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그

공적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동 수상을 인정한다.

4) 수상자는 생존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하여 상속인이 대리 수상한다.

제5조 추천 대상

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 또는 심사할 때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억눌리고 갇힌 자를 위로하고 기본 인권을 살리는데 기여한 여성 또는 여성단체

2)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여성 또는 여성단체

3) 불신과 불화 그리고 위기의 사회에서 화해와 평화를 구현하는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여성 또는 단체

4)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역사적으로 주체적인 시민의식을 일깨워 나간 여성 또는 단체

5) 이러한 삶이 이웃에게 영향을 끼쳐 이를 본받고자 하는 이들을 잘 육성시키는데 기여한 여성 또는 여성단체

6) 지금까지의 공로와 업적들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높이 평가를 받아 고 있는 여성 또는 여성 단체

제6조 본상 및 부상

1) 수상자에게는 본상으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시상금을 지급한다.

2) 제4조 3)항의 경우 본상은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며, 부상은 수상자 전원에게 균분 지급한다.

3)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본상과 부상은 충청남도에서 충당한다.

제2장 유관순상 위원회

제7조 위원회 구성

유관순상 위원회(다음에는 "위원회"라고 함)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을 합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다.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도지사와 동아일보사 사장 그리고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추천을 담당한다.

2)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3) 위원은 정신과 삶이 바르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로 당연직 위원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 시행과 관련된 제반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한다.

2) 후보자 추천인을 선정하여 수상 추천을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4) 심사위원회에서 제청된 순위별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최종으로 심의하여 수상자를 확정한다.

5)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며 유권해석을 내려 시행한다.

6) 그 외 상에 관계된 부대 행사를 기획하여 집행한다.

7)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 실무를 담당케 한다.

8) 사무국에는 당연직 각 위원이 1인씩 임명한 사무

연락 직원 3명과 필요에 따라 보수직 사무 간사를 둘 수 있다.

9) 사무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경리 업무 등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0) 위원회와 사무국은 이화여고 안에 둔다.

제9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4회 개최하며 필요할 때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후보자 추천

제11조 추천인

해당 년도 시상을 위한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에 정한 추천인이 한다.

1) 역대 유관순상 수상자
2) 위원회가 정한 기관 및 단체장
3) 위원회가 별도로 위촉한 추천 특별위원회

제12조 추천인원

추천인은 1인, 혹은 1개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추천 의뢰

위원회는 매년 9월과 익년 3월 2회에 걸쳐 시상 계획을 공고하고 익년 4월 이전에 추천인에게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 추천의뢰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14조 추천서 접수

1) 위원회는 매년 6월말까지 후보자의 추천서를 접수한다.
2) 사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추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추천 내용 비공개

위원회에 접수된 추천서 및 후보자의 업적 내용은 본

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심사

제16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은 추천된 후보자의 공로와 업적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인사 중에서 5~9인을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7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1) 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 심사 및 업적 내용을 평가한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 후보자 순위를 의결 확정한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청한다.

제18조 조사 및 자문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후보자의 업적을 조사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장 수상자 확정 및 발표

제19조 수상자 확정

심사위원회에서 제청된 수상후보자 순위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수상자를 확정한다.

제19조 수상자 발표

수상자 발표는 수상일 30일 전에 동아일보 및 일간지 그리고 방송사를 통해 발표한다.

제20조 수상 결정 사실의 통보

위원회는 수상자에게 수상 결정 사실을 제19조의 수상자 발표와 함께 서신으로 통보한다.

제6장 시상

제21조 시상일

매년 10월 12일(공휴일 경우는 전일) 유관순열사 순국일에 시상한다.

제22조 시상자

시상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위임하는 인사가 한다.

제23조 부상의 수여 방법 및 귀속

부상은 위원회가 지정한 지급 증서 또는 현금으로 수여한다.

제24조 시상식 참석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4조 (4)항의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5조 위원회의 운영과 후보자 추천, 심사 및 상과 부상 그리고 각종 홍보 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청남도의 내규에 따른 예산과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 예산의 집행은 상 위원장의 결재로 행하되 결산 시에 당연직 위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1년 4월부터 시행한다.

2) 유관순상과 관련하여 본 규정 외의 것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Ⅳ. 결론

자칫하면 역사의 그늘 속에 가리워 묻혀 버릴 뻔한 유관순은 해방 직후 그의 스승이자, 3.1운동의 동지였던 이화여고 교사인 박인덕 미국에서 돌아와 그의 순국의 뜻을 알리고자 모교인 이화여고의 교장인 신봉조를 만난 것을 계기로 '애국애족 소녀'로서 국가의 빛이 되었다.

그러나 굴곡이 많았던 한국 현대사의 정치·사회·경제적 흐름과 맞물려 유관순에 대한 이미지는 더 이상의 발전적 변화 없이 애국애족 소녀 그대로의 이미지만을 간직한 채 화석처럼 굳어져 갔다. 과거의 이미지와 역사가 급변하는 시대에 변치 않고 제시되어 왔다. 이는 단지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의 나와 우리와는 동떨어진 과거의 사건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더욱 각 시대마다 유관순의 삶을 들먹이며 각 시대에 요구되는 애국애족을 강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유관순의 바른 역사적 의미를 발굴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펼치는 데에는 적합치 않은 행위였다. 제일 우선되는 행위는 유관순의 삶을 커다란 한국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는 그대로 찾는 작업이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감정과 과장의 날개를 접어두었다. 당시의 역사의 소용돌이를 밝

히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짧고도 조각난 유관순에 관한 많지 않은 사실들을 얹어 놓았다. 그 당시의 역사의 흐름의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 재조정하면서 나열하였다. 그리고는 그 끊겨진 부분을 흐름과 상상의 도움으로 이어서 한 인격체로서의 유관순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신 바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유관순의 모습이 들어 났다. 최근 임선희에 의해서 밝혀진 것과 같은 민족운동가로서의 유관순,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유관순, 조직가로서의 유관순, 계몽가로서의 유관순, 신앙인으로서의 유관순, 여권운동가로서의 유관순을 찾을 수 있었다.[50] 뿐만 아니라 유족 대표들이 기억하는 면을 말한다면 '정의롭고, 슬기롭고, 협동과 단결된 힘을 끌어올리는 선도적 여성'[51] 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유관순의 정신과 삶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는 점이다. 본 논문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 시대를 시민사회라고 할 때 '오늘 이곳에서 유관순이 살았다면 무엇을 행하였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유관순상을 받을 사람의 모습이 된다고 하겠다. 21세기에 바람직한 시민상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존엄의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50) 임선희, 『유관순의 생애와 정신』, 충남대학교 여성정책연구소, 2000
유관순상 제정을 위한 연구의 첫걸음을 디딘 논문으로 본 연구에 큰 지침이 되었다.
51) 류관순열사 기념유족장학회 회장인 김정애의 주장

위하여 온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에서 유관순의 모습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삶들을 통하여 어두운 역사는 변하고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21세기의 유관순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유관순상 제정과 운영에 관한 문제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역사와 사회와 행정의 분야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를 나타냈다고 본다. 그러나 유관순을 통하여 이 시대 여성의 역할 모델을 찾아 격려하며 그 삶을 펴트리는 사명이 주어졌기에 가능한 일로서 진행하였다. 이제 남겨진 일은 유관순상을 받을 여성을 바로 선정하여서 오늘의 유관순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유관순상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인 활동을 통하여 역사적 유관순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유관순까지도 분명히 알고 그 정신과 삶을 익히고 배워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하리라 믿는다. 무엇보다 유관순에 대한 첫 이미지를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 유관순 열사에 관한 전기를 오늘의 어린이들의 심성과 경험과 삶 속에서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검토하며 바른 전기를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또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유관순 이해를 위한 연극 대본을 만들고, 순회 공연하며, 공연 후의 포름 등을 통하여 성숙한 유관순에 관한 이해를 갖도록 힘써야 한다. 각

계층에 알맞게 이와 같은 의미의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나누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한 인물이 역사에 나타나서 당대의 그릇된 역사적 흐름을 바로 세우는 일만하여도 엄청난 사건이다. 이보다는 자신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과 삶이 후세 사람들의 본이 되어 역사의 흐름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인류에게 크나큰 축복이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유관순을 통하여 이 같은 변화와 축복을 기대한다.

Ⅴ. 부록 : 유관순에 관한 자료

(1) 유관순 기념 사업

1) 기념비

기미 독립운동 기념비문

기미독립운동 때 아우내서 일어난 장렬한 자취라 기미 삼월 일일 독립선언이 나며 국내 국외에 만세소리 서로 연하였었다. 그 가운데에도 충남 목천 아우내 장터 일은 가장 장렬한 운동의 하나다. 그날 적의 총칼에 넘어진 이만 노소남녀 스무 분이요, 옥에서 갇힌 이 한 분이니, 이 한 분이 곧 어린 여학생 유관순 열 여섯에 이 일을 일으켰다. 음력 삼월 일일은 아우내 장이다. 어린 여학생의 높은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 온 장터가 만세 속에 들었다. 독립정신 내미는 앞에 총칼이 보이지 아니하니 마침내 많은 피가 흘렀다. 유관순은 잡히었다. 묶여드는 여러 사람을 보더니 소리를 높여 오늘 일은 다 내다. 적이 보니 어린 여학생이다. 일은 크다. 나는 작다. 온갖 악형을 다하며 누가 한 것을 대라고 하였으나 오직 내다라고 할뿐이었다. 그 아버지 유중권과 그 어머니 이씨는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고 유관순은 끝끝내 굴하지 아니하여 징역 삼 년이 다시 칠 년이 되더니 얼마 아니하여 궂기니 잡히던 이듬해 시월이다. 처음 일어

나던 날 유씨집 부부보다 먼저 김구응은 그 어머니 최씨와 모자 함께요. 조인원, 김상헌, 서병순, 박상규, 전치관, 한상필, 윤희천, 유중오, 윤태영, 이상하, 박병호, 신을우, 박유복, 박영학, 방치석, 박준규다. 한날 적의 총칼에 넘어진 분들이니 응해서 일어난 이 일으킨 사람과 둘이 아니요 이듬해 옥사가 그날의 죽음과 다름이 없다. 형제야 자매야 선열의 피 빛이 아직껏 새롭다. 이 자취를 돌에다 사기거니와 서로를 마음에 사기라.

대한민국 이십 구년 시월 일

정인보는 짓고 김충현은 쓰다

2) 순국 처녀 유관순의 비

제문

유관순 처녀의 영령 앞에 가장 큰 정성으로 비통 존경 감사의 뜻을 드리나이다. 처녀는 숭고한 의지와 특수한 지혜와 초월한 용기를 타고나서 인생으로서 겨우 싹이 틀 지음에 동포의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사람이 따를 수 없는 비장한 자취를 남기고 원수의 손길에서 이슬이 되셨나이다. 거대하고 감탄한 행사를 계획할 때의 민활 침착한 그의 태도, 부로 형제의 그 앞을 서서 총칼을 무릎쓰고 적을 향하여 전진하시던 때의 그의 용기, 잔인 포악한 고초를 당하시던 때의 원수에 대한 그의 분

노 의식이 끝나려던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 민족에 남기신 그의 부탁들을 우리가 명확히 제찰하나이다. 처녀의 용모와 음성에 접촉치 못했음을 우리가 못내 한스럽게 여기오나 그 몸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산천초목을 적실지며 그 넋은 겨레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 것이니 싹으로 쓰러진 그 생활의 꽃과 열매가 이미 땅 위에 가득하고 그 향기 또한 영원히 전하리라. 처녀가 미워하시던 왜 강도는 우리 앞에 항복하였느니 처녀가 찾으시려던 자유와 독립은 아직 성취되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처녀의 뜻이 하루바삐 실현되도록 죽음으로써 투쟁할 것을 처녀의 영령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맹세하나이다.

나라를 위해 오셨다가 나라를 위해 가신 용두리 처녀며, 호국의 신이 되어 영원히 이 땅을 지켜주신 한국의 처녀시여, 오를레앙 성의 처녀와 마주 앉으실 세계의 처녀시여, 양친의 충혼을 모시고 지령산의 달빛과 만화천의 물소리를 벗삼아 평화로이 쉬사이다.

단기 4280년 10월 27일

유림

3) 유관순 생가지 기념비

유관순 기념비문

천년에나 한번씩 나타나는 크고 빛난 별이 바로 이곳

에 내려와 1902년 3월15일에 유관순양은 태어났다.

유관순 양은 벌처럼 밝고 총명하고 씩씩한 처녀로서 일찌기 기독교 신자이며 애국자인 아버지 유중권씨와 어머니 이씨의 교훈아래 어려서부터 효성과 신념이 강하고 형제와 친구에게도 우애와 남달리 두터웠다.

관순은 13살에 서울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배우는 동한 성실한 모범생으로 이름이 높았다. 16살이 되는 기미년 삼일운동에 참가했으나 무자비한 저들의 탄압으로 숙원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서 다시 거사할 것을 결심하고 지령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마을의 원로들과 청년층을 동원하여 본부를 지령에 두고 사방백리 안팎의 각고을 사십여 마을을 포섭하는 책임을 맡고 나섰다.

때로는 여우와 범도 만나고 대낮에 장정도 꺼린다는 높은 재를 밤에 몇 개나 넘어 발이 짓물러서 촌보가 어려울 때도 있었으나 오직 찬송가와 기도로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같이 20여 일을 돌아다니며 교회, 학교, 유림 대표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거사의 장소와 시일을 약속한 다음 마침내 음력 2월 그믐날 밤에 관순은 매봉에 올라가 내일을 알리는 봉화를 높이 들었다.

천안·안성·진천·청주·연기·목천 등 사방 여섯 고을의 원근 산봉우리에는 24개의 봉화가 약속에 호응하여 수 시간이나 조요하게 타올랐던 것이다.

음력 3월1일 정오에 아우내 장터에서는 나라의 주권

을 외치는 수만 명의 만세소리가 태극기 물결과 함께 천지를 흔들었다. 그랬으나 불행히도 관순의 부모와 이십여명의 열사들은 즉석에서 저들의 총칼아래 충혼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에 관순도 체포되어 일본 헌병의 손아귀에서 가진 악형을 당하였으나 추호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3년의 언도를 받았으나 법정에서 투쟁한 죄목으로 또 다시 칠년의 형을 받았다. 그리하여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면서도 밤낮없이 옥중 투쟁을 계속하다가 1920년 시월 십이일 8시12분에 크고 빛난 우리의 별은 17년 머물렀던 이 땅 위에서 빛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나 그 별은 오늘도 이 하늘에 떠 있어 영원한 겨레의 별이 된 것이다.

이곳은 사적 제230호로 지정되었고 1960년 9월에 비를 세웠는데 1976년 10월20일 박정희 대통령의 이 뜻깊은 유적을 정화하고 정성으로 보호하라는 뜻을 받들어 1977년 봄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 비를 다시 세우고 봉화탑을 새로 쌓고 추모각과 매봉 교회를 보수하여 성스럽게 수호하게 되었다.

서기 1977년 8월 1일 세우다
박화성 짓고 이철경 쓰다

4) 봉화탑 비문

정의의 상징
이 나라의 딸 유관순 그대 매봉에 올라
높이 들었던 봉화
여섯 고을 스물 넷 산봉우리마다
내일을 약속하며 같이 타오른 봉화들
이 길로 가야 자유가 있고
이 길로 가야 평화가 있고
오직 이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에타게 일러준 거룩한 봉화였네
그대 손에 들었던 그 정열의 봉화
민족을 끊는 피로써
기름을 삼았기에 악마의 풍우 속에서도
꺼질리 없었고
오늘 역사의 제단에 이리도 화사로이
무궁화 꽃송이처럼
피어오른 봉화라
영원히 겨레의 가슴 가슴에
타오르리라 타오르리라

일천 구백 칠십 칠년 칠월
이은상 글 김기승 씀

5) 유관순 동상 비문

하늘의 딸 유관순은 우리 민족 정기의 화신이다.
일천구백십구년 기미 삼월 일일
어린 여학생의 몸으로
태극기를 높이 드니
여섯 고을이 향응하고
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니
왜적의 총칼이 보이지 않아
아우내 장터가 피로 물들었다
왜병에게 잡힌 몸이 되었으나
자유를 굳게 주장하여
왜적의 재판을 거절하니
적의 법관도 크게 놀랐다
칠년의 최고형을 받고
옥중에서도
용감히 투쟁하다가
마침내 피살되니
그때 나이 겨우 열일곱
아아 슬프다
인간의 생애는 비록 짧으나
천사의 성녀로서

거룩한 그 정신은
이 나라의 수호신이 되어
이 겨레와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서기 1983년 10월12일 柳濟漢이 글을 짓고 印永宣이 글을 쓰고 李鍾珏이 조각하다.

6) 기념노래

① 유관순 처녀의 기념가

작사 이병기
작곡 이흥렬

세계를 놀래던 독립의 만세
앞을 서 외치던 이름난 이곳
조국을 찾으려 목숨을 버린
선열의 은덕을 어이 잊으리

곱고도 연연한 어린 몸으로
탄알과 칼날을 홀로 막으며
겨루고 싸우던 짧은 인생은
영구히 빛나는 우리의 거울

모여라 모여라 오누이들이여
세우자 세우자 그의 기념탑

우리도 앞앞이 그 뜻을 이어
새로운 조국에 몸을 바치자

② 유관순 소녀 추념가

아세아 동쪽 메에 정기 내리고
메봉의 평퍼짐이 드내린 곳에
거룩타 자유 찾던 유관순 소녀
죽음을 명세하고 선언서 들고
독립을 부르짖던 우리의 선배
받들어 본받어서 빨리 따르세

아내 장 옛 터전에 공이 이뤄
구미산 언덕 위에 우뚝 섰는 비
거룩타 피흘리던 애국의 용사
의리를 위해 싸워 앞잡이 서서
희생을 기뻐하는 우리의 거울
받들어 본받아서 빨리 따르세

③ 유관순 노래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졌대요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불러 봅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 들릴 듯하여
푸른 하늘 우러러 불러 봅니다.

④ 순국처녀 유관순 추모가

천안 삼거리 동으로 삼십리
기미운동 장렬한 자취도 새롭다
얼씨구나 좋고 좋구나 절씨구 좋아요
이름도 좋다 아오내 장터지

아오내 물은 예 이제 흘러 말하고]
선열의 피빛은 새로워만 가노라
얼씨구나 좋고 좋고나 절씨구 좋아요
선열이 그리워 기념탑을 세웠지

저기 저 산이 매봉산이라지요
동지 섣달 설한에도 돌립꽃만 피노라
얼씨구나 좋고 좋구나 절시구 좋아요
사랑 사랑이 금수강산 뿐이라

서대문 감옥에 흘리신 피는
우리 동포 삼천만의 보혈제로다
얼씨구나 좋고 좋고나 절씨구 좋아요
선령의 승덕으로 해방이 되었지

메봉산 상봉에 들으신 봉화는
우리 겨레 갈 길을 밝히심이라
얼씨구나 좋고 좋구나 절씨구 좋아요
삼천만 동포에 갈 길을 알았다

선열의 승업을 본을 받아서
우리끼리 이 강토를 지키어 갑시다
얼씨구나 좋고 좋고나 절씨구 좋아요
삼천리 강산에 무궁화만 피노라

(2) 재판기록

대정 8년 형공 제 513호

판결

충청남도 천안군 동면 용두리	농업	조인원 56세
동도 동군 수신면 복다회리	농업	김상훈 46세

동도 동군 동면 용두리	학생	유관순 18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유중무 45세
동도 동군 수신면 발산리	농업	김용이 24세
동도 동군 동면 용두리	농업	조병호 21세
동도 동군 수신면 복다회리	농업	백정운 24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신씨 67세
동도 동군 갈전면 변천리	농업	박만석 19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이발업	박봉례 27세

위의 11명에 대한 소유 및 보안법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대정 8년 5월8일 공주 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 11명으로부터 공소 신립이 있었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 총독부 검사 수야 중공 관여로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원판결 가운데 피고 조인원, 김상훈, 유관순, 유중무, 김용이, 조병호, 백정운, 조만형, 박만석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신씨 대한 유죄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조인원, 유관순, 유중무를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 김용이, 조병호를 징역 2년6월에 처하며 피고 김상훈, 백정운을 징역 1년6월에 처하며 피고 조만형, 박만석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신씨, 김상훈, 백정운, 조만형, 박만석에 대한 소유

공소 사실은 무죄를 언도한다. 피고 박봉례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압수물건 가운데 영 제 1호 구한국 국기 한 자루는 이를 몰수하고 여타는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그림 9 유관순 재판기록

이유

제1, 피고 유관순은 재경성(在 京城) 이화학당 (梨花學堂) 생도인 바 대정 8년 3월1일 경성에서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발표하고 단체를 만들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각처를 행진하며 독립 시위운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고 동월 13일 귀향하여 4월1일 충청남도 천안군 갈전면 철천(鐵川) 시장 장날을 이용하여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전개할 것을 꾀하고 자택에서 태극기(구한국기 압수 영 제 1호)를 만들어 이를 휴대하고 동일 하오 1시경 동 시장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수천명의 군중 단체에 참가하여 전시 태극기를 휘두르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 시위 운동을 감행하여 치안을 방해하였고 피고 유중무, 김용이, 백정운, 박만석, 조만형, 김상훈, 조인원, 조병호, 박봉례는 동년 4월 1일하오 1시경 전시 철천시장에 나가 다수 군중 단체에 참가하여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 시위운동을 감행함으로써 치

안을 방해하였다.

제2, 전시(前示) 피고 등이 이와 같이 독립 시위운동을 하자 그곳에서 약 50보 거리의 철천 헌병 주재소 헌병이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매 발포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냈으며 피고 유관순의 부(父)이며 피고 유중무의 형인 유중권도 그 피해자의 한 사람인 바 피고 유중무 및 군중은 그 피해자를 둘러메고 주재소로 몰려가 피고 유중무, 유관순, 김용이, 조인원, 조병호는 군중에 솔선하여 유중무는 두루마기의 끈을 풀러 대성격노(大聲激怒)하여 헌병의 목을 졸라매려고 하였고 또 그 형인 피해자를 동 주재서 사무실로 넣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헌병 보조원 맹성호 (孟星鎬)에 대해 "너는 보조원을 몇 십년 하겠느냐? 때려 죽이겠다"고 하였고 피고 유관순은 동 주재소장을 잡아 나꿔채며 항의하였고 피고 김용이는 헌병에게 투석하고 동 주재소 보조원 정수영(鄭壽永)에 대해 "조선 사람이면서 무엇 때문에 왜놈의 헌병 보조원을 하느냐? 죽여 버리라" 고 호통치며 주전자를 그의 가슴에 던졌고 피고 조인원은 상의를 벗어 동 주재소장 및 헌병들의 총을 나꿔채며 그 아들인 조병호는 전시 헌병 상등병의 뺨을 때리고 협박했으며 군중은 동 주재소원의 총에 달려들어 탄약함을 잡아떼며 또는 소장을 죽이라고 외쳐 소란을 피웠다.

제 1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의 피고 유관순, 유중무, 김용이, 박만석, 조만형, 김상훈, 조병호, 박봉래의 각

각 판시 사실과 동일한 요지의 공술 및 피고 백정운, 조인원의 '자기들은 대정 8년 3월 1일 이후 조선 각지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독립 시위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에 자기들은 철천 시장에 나가서 군중 시위 운동을 구경하고 있었다.' 는 요지의 진술과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 유관순의 '압수 영 2-1호의 구 한국 국기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진술, 동 피고 백정운의 '자기는 김상훈이 한국기를 건네주어 그것으로 만세를 불렀다'는 진술과 사법 경찰관의 조인원에 대한 심문조서 가운데 '자기는 유중무, 유중권 및 자기 아들 조병호와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자기가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며, 제 2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의 피고 유관순은 '철천 시장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헌병 주재소와는 약 50보 거리였는데 헌병이 쫓아와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총검을 휘둘러 즉사 19명 중상자 30명을 내었고 자기 부친도 살해되었는데 헌병이 군중에게 발포하려고 총을 겨누었을 때 자기는 쌍방을 제지키 위해 헌병의 총에 달려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동 유중무는 '주재소 헌병이 군중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으나 군중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발포하여 군중 가운데 사자 2명이 생겼으며 이에 격분한 군중은 시체를 주재소로 밀어 넣었고 자기는 형 유중권이 헌병에게 총검으로 옆구리 및 머리를 찔려 빈

사상태에 빠지자 형을 업고 주재소로 가 치료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요지의 공술을 하였고, 동 김용이는 '자기는 주재소로 몰려가 만세를 외쳤다' 는 진술을 했으며 동 조병호는 '자기는 조인원의 아들' 이라는 공술을 했으며 원심공판 시말서 가운데서 조인원의 '헌병의 발포로 자기는 좌흉부를 맞았고 왼팔을 총검으로 찔리웠고 또한 사망자 2명이 발생하매 그 시체를 메어 주재소로 갔었다' 는 공술과 검사의 조병호에 대한 신문조서 가운데 '만세를 외치자 헌병들이 발포하여 일단 피했었고 군중이 주재소로 몰려갔으나 헌병이 시체를 밖으로 내어 던졌다'는 요지의 공술 및 사법 경찰관의 김용이에 대한 신문조서 가운데서 '자기는 헌병에게 한번 투석했고 그 손을 잡아당기며 병기의 손을 댄 일이 있다' 는 요지의 공술과 원심공판 시말서 가운데서 피고 유관순은 '만세를 부른 다음 주재소로 가자 부친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격분하여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고 대어들자 헌병이 총을 겨누기에 죽음을 당할까 보아 그 가슴에 달려들었다' 는 요지의 공술과 검사의 헌병 상등병 진상부에 대한 조서 가운데 '자기는 철천헌병주재소 재근인 헌병인데 판시 일이 철천 장날 하오 1시 경 만세를 외치며 군중이 대한 국기를 선두에 세우고 몰려왔기 때문에 해산을 명했으나 응하지 않아 기총(騎銃)을 발포한 즉 일

단 물러갔으나 그 뒤 이 발포로 말미암아 유관순의 부친과 남씨의 남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약 40명의 군중이 그 시체를 메고 주재소로 다시 몰려와 무엇인가 떠들기에 주재소원 너댓명이 밖으로 달려나오자 1천 5백명 이상의 군중은 주재소로 몰려오고 있었고 소원 5명은 주재소 앞에 정렬하여 있을 때 유리창이 깨졌으며 그로부터 자기들은 사무소 입구 왼쪽 벽에 병렬했는데, 군중은 자기들 5명이 소지한 기총에 달려들어 탄약함을 잡아당기고 소장을 죽이라고 외치며 소장을 끌어 내려하여 권총을 몇 번 발사한 즉 군중은 다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피고 유중무는 두루마기의 끈을 풀어 고함을 지르며 헌병을 잡고 조르려는 기세를 보였고, 조인원은 처음 시체를 밀어 넣을 때 시체와 함께 들어서서 상의를 벗고 소장의 총에 달려드는가 하면 또한 자기의 총에도 달라붙었고, 유관순은 소장의 착의에 혈흔이 부착해있음을 가리키며 군중에게 무엇인가 외치고 소장의 멱살을 쥐고 휘저었고, 조인원의 아들은 자기의 뺨을 한번 때리더라 '는 요지의 공술 기재 및 사법 경찰관의 헌병 보조원 맹성호에 대한 신문조서 가운데 ' 대정8년 4월 1일 피고 유중무는 그의 형이 장터에서 헌병에 의해 중상을 입었다하여 형을 업고 주재소로 들어 오려고 하기에 제지하자, 그는 자기들에 대해 " 너희는 몇십년이나 보조원을 하겠느냐? 때려 죽이겠다 "고 하며, 피고 김용이는 자기들

에 대해 "어찌서 왜놈들과 함께 일하는 보조원 노릇을 하느냐? 함께 만세를 부르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시원치 않을 놈" 이라고 호통을 치더라'는 요지의 골술 및 동 보조원 징수영에 대한 신문조서 가운데 ' 판시 일시 철천 시장에서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음에 소산 주재소장 외 4명은 자기와 맹성호에 대해 장터로 출동하니 주재소 사무소를 지키되 발포할지도 모르니 보조원은 발포 준비를 하고 있으라 명하고 떠났으나 잠시 후 총성이 들려왔으며 이윽고 유중무와 김용이는 군중과 함께 부상자를 주재소로 업고와 주재소로 넣으려 하기에 문을 닫자 김용이는 자기들에 대해 "조선 사람이면서 무엇하느냐? 몇십년 보조원을 해먹을 생각이냐? 죽여버리겠다"고 하기에 부상자에게 더운 물을 주라고 하며 주전자를 내어 주자 이따위 물을 마실 수 있느냐고 자기에게 주전자를 집어 던져 가슴을 얻어 맞았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를 종합하건대 이상의 사실을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피고 유관순 · 유중무 · 조인원 · 김용이 · 백정운 · 박만석 · 조만형 · 김상훈 · 조병호 · 박봉래의 제1의 소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 8조 · 제 6조에 따라 신 · 구 양법을 비교하여 그 가벼운 바를 적용할 것이데 신법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 7호 · 조선 형사령 제 42조에 해당문을 적용코 직영형을 선택, 피고 유관순 · 유중무 · 김용이 · 조인

원 · 조병호의 제 2의 소위는 각가가 형법 제 106조 제 2호에 해당죄임에 동법 제 47조 제 10조에 따라 무거운 제 2의 죄에 과형할 것으로 동법 247조 단서의 가중형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유관순 · 유중무 · 조인원을 각각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 김용이 · 조병호를 각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피고 김상훈 · 백정운을 징역 1년에, 피고 조만형 · 박만석을 각각 징역 8월에, 피고 박봉래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김상훈 · 백정운 · 신씨가 판시 제2의 소요죄에 가담하여 피고 조만형 · 박만석이 동 소요에 가세하고 또는 부화 수행하였다는 공소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바 동 피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법 제 258조 제 1항, 제 236조 · 제 224조에 따라 각각 무죄를 언도한다.

압수물건 중 구 한국 국기 한 자루는 피고 유관순 소유의 제 1범죄 공용물이므로 형법 제 19조 제 1항 제 2호 · 제 2항에 따라 이를 몰수하고 여타는 형사소송법 제 202조에 따라 일제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원 판결에 있어 피고 신씨에 대한 소요 공소사실은 그 증거가 충분타고 보아 유죄 판결을 했고 피고 김상훈 · 백정운 · 조만형 · 박만석에 대해 소요 공소 사실을 그 증거가 충분타고 인정하여 판시 치안방해 죄와 병합죄로 처단했고 또한 유관순 · 유중무 · 김용이 · 조인원 · 조병호에 대한 형의 양정은 과중하여 타당치 않으매 동 피고 등의 공소는 각각 이유있고 피고 박봉래에 대해 판시 사

실을 인정하여 판시 법조문을 적용코 징역 6월을 선고했음은 타당한 바 동 피고의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동법 제 26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30일

경성 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 총독부 판사 총원 우태량

비고 : 대정 8년 9월 11일 상고 기각되다

참고 문헌

(1) 안병직, 박성수 외,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2) 김용섭, 『한국근현대농업사 연구』, 일조각, 1992

(3) 홍석창, 『유관순양과 메봉교회』, 한국감리교회사학회, 1996

(4) 심치선, 『이화백년사』, 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5) 한영제, 『한국기독교 인물 100년』, 기독교문사, 1988

(6) 이선교, 『다시 써야할 한국기독교사 』, 풀빛목회, 1993

(7) 서정민, 『한국교회사회운동사』, 이레서원, 1995

(8) 장병욱, 『한국감리교여성사』, 성광문화사, 1979

(9)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사강의』, 한울, 1989

(10) 신광철, < 유관순 신앙과 3.1운동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식』 36호, 1999

(11) 박용옥, < 여성3.1운동의 역사적 맥락 >, 『한국여성독립운동사』, 3.1여성동지회, 1980

(12) 박용옥, < 기독교와 여성의 개화 >, 『여성!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13) 박용옥, < 유관순 >,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 한국여성개발원, 1998

(14)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5) 박용옥, 『한국여성항일운동사』, 지식산업사, 1998

(16) 김진봉, < 호서지방3.1운동의 성격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17) 신용하, <한국 국내 민족독립운동의 특징>, 『3.1운동』, 국가보훈처

(18)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88

(19)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지문화사, 1985

(20) 이용락 편저, 『3.1운동실록』, 1994

(21) 윤경로, < 1910년대 독립운동의 동향과 그 특성 >, 『3.1운동』, 국가보훈처

(22) 박화성, 『타오르는 별』, 세운문화사, 1972

(23) 김정명편, 『조선독립운동』 1, 1996

(24) 최은희,< 멍에를 벗긴 사람들 >,『한국 개화 여성 열전』, 정음사, 1985

(25) 안병직, < 3.1운동에 참가한 사회 계층과 그 사상 >, 『3.1운동』 , 한국일보사, 1975

(26) 류청하, <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한국 근대 민족 운동사』, 돌베개, 1980

(27) 여성동아편집실, 『아 3월, 기미년 횃불 든 여인들』 .동아일보사, 1971

(28) 임선희, 『유관순의 생애와 정신』, 충남대학교 여성정책연구소, 2000

(29)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70주년기념-3.1운동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30) 이정은, < 3.1운동의 지방확산 배경과 성격> ,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5, 1991

(31) 이정은, < 유관순 >,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 한국교육개발원, 1998

(32) 동아일보사, 『3.1운동과민족통일』, 1999

(33) 윤혜원, < 기독교학교와 여성교육>, 『여성!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34) 국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3, 1971

(35) 국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5, 1975

(36) 국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6, 1975

(37)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II』, 기독교문사,1990

(38) 서정민, 『순간의 빛 흩어진 이야기』, 이례, 1996

(39) 기독교대한감리회서울연회본부, 『3,1운동 그날의 기록』, 탁사, 2001

CHUNG CHEONG NAM – DO
AM014476